

速記界

創刊號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70年4月

目 次

卷 頭 辭.....會長 崔 致 煥..... 1

<祝 辭>

速記界創刊에 즈음하여.....文化公報部長官 申 範 植..... 2

科學하는 姿勢.....國會議事局長 河 在 鳩..... 3

協會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覺悟.....	理事長 李 東 一.....	5
當面한 協會實情.....	楊 澈 在.....	7

70年度 事業概觀.....申 世 華.....10

資質向上과 資格檢定.....韓 鍾 烈.....13

第6回速記講習과 그 成果.....李 康 賢.....16

速記職再評價論.....梁 源 龍.....19

● **特別寄稿**

速記와 나(上).....張 基 泰.....22

外國速記界視察記(上).....鄭 源 道.....26

隨 筆 | 속기가 최고야.....김 기 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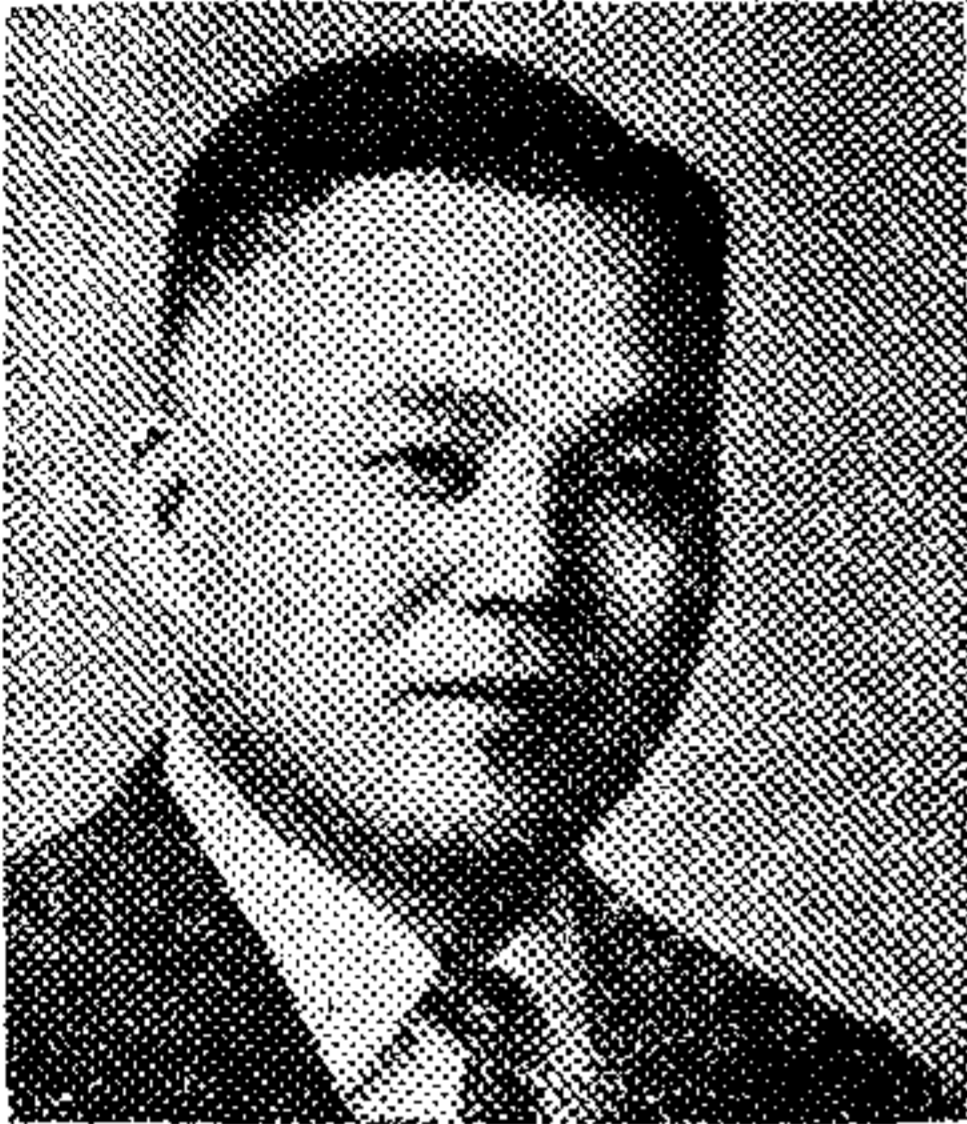
筆 | 生活人의 態度.....河 良 培.....32

◇ 會務日誌.....總 務 部.....34

◇ 定款·任員名單.....35

卷 頭 辭

會 長 崔 致 煥



言語가 있고 討論이 있고 會議가 있고 政治가 있는 곳
에 速記士의 速記活動은 필수요건이 된 現代文明이다.

人類文明이 宇宙空間을 征服하고 있는 이 時機에 從來
의 Long Hand로선 雜多한 人間生活에 뒤지고 만다. 1抄
에 6字를 적어내는 Short Hand가 가지는 그 價値는 모든 事務處理의 機敏性·
迅速性 正確性을 必要로 하는 오늘날의 人類生活에 크게 寄與한다는데 그
意義가 있다. 엉거주춤은 自滅을 뜻한다. 文化史에 비친 速記術의 功獻은 이
런 點에서도 實로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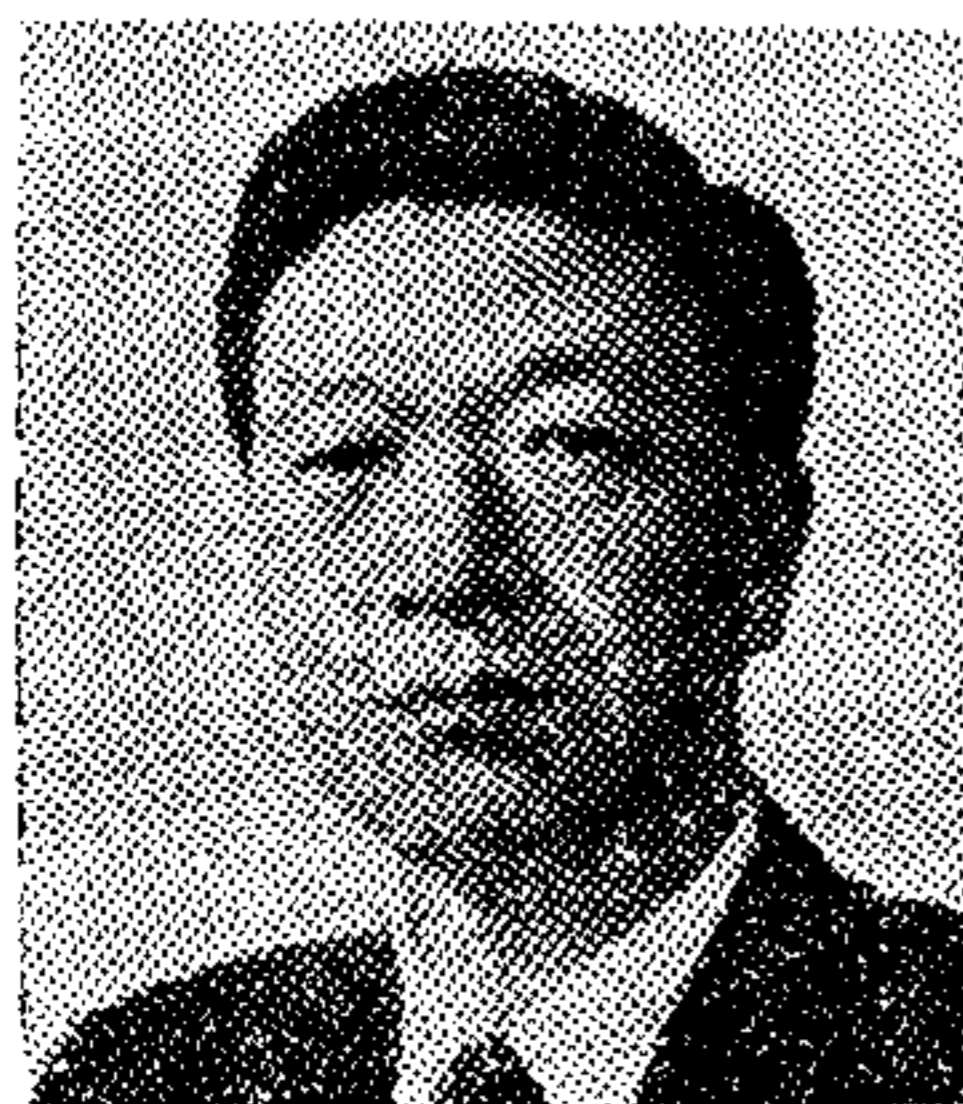
現代人은 그들의 現代社會에서 疏外 되어서는 안된다. 萬一 그가 現代生活
의 템포에서 疏外되었을때 사람들은 자꾸만 遠心作用으로 疏外圈에서 自虐을
하게 된다. 疏外圈에서는 대개 비굴해지지 않으면 疏外王國을 만들어 outsider
임을 자존하고 그를 疏外시킨 主體를 빈축하게 되는 슬픈 現象이 나타난다.
Outsider가 되어서는 안된다.

2百餘 우리 協會會員은 그동안 國會를 비롯한 各分野에서 수많은 逆境을 헤
치고 오늘날과 같은 各分野의 核心部에 굳건한 자리를 굳히게 되었음을 자랑
하고 또 격려한다. 훌륭한 일꾼으로서 祖國近代化作業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흐뭇하기 이를 데 없다.

은 國民이 總力을 기울이는 70年代— 우리 모두 歷史的 使命感을 마음속에
되새겨 記錄報國의 姿勢를 再確立해야 겠다. (國會議員)

「速記界」創刊에 즈음하여

文化公報部長官 申 範 植



세계로 뻗어가는 국력의 신장이 현저해진 오늘의 시점에서 사단법인으로서의 새로운 의욕으로 면모를 일신한 대한속기협회에서 새봄을 맞이하여 청신한 기획으로 「速記界」 창간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연면히 이어온 우리 배달민족은 영특한 선조들의 창조적 지혜로서 고유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는 영광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 민족에게 스스로의 민족중흥을 이루게 하였고 때로는 타 민족의 침입으로 부터 이를 지키는 굳건한 정신자세를 배양케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불어 민족적 자주정신은 다시 한민족으로 하여금 전 인류문화의 일익을 담당케 했던 것으로 이는 하나의 풍속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로 얽혀진 민족적 정신의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사상의 표현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키 위한 선각자들의 50여년의 백철 불굴의 각고와 투지로서 한국에서도 속기문화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국민 개개인이 그리고 지도자와 국민간의 뜻하고 희망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왜곡됨이 없이 전달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의 다각화와 복잡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능수요는 강화되고 더욱 완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의 핵심적 활동상은 민주헌정의 역사적 증언자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하겠읍니다.

우리 모두가 회구하는 바는 민족문화의 육성양양과 세계문화에 공헌할 수 있는 힘의 배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나라 속기계 여러분들은 일치단결하여 사상전달분야의 개척자적 위치에서 더욱 역사적 사명감을 투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보다 알찬 기록문화의 결실을 맺어줄 것을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속기계 여러분의 전승과 속기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심축합니다. 감사합니다.

科學 하는 姿 勢

* 國會事務處議事局長 河 在 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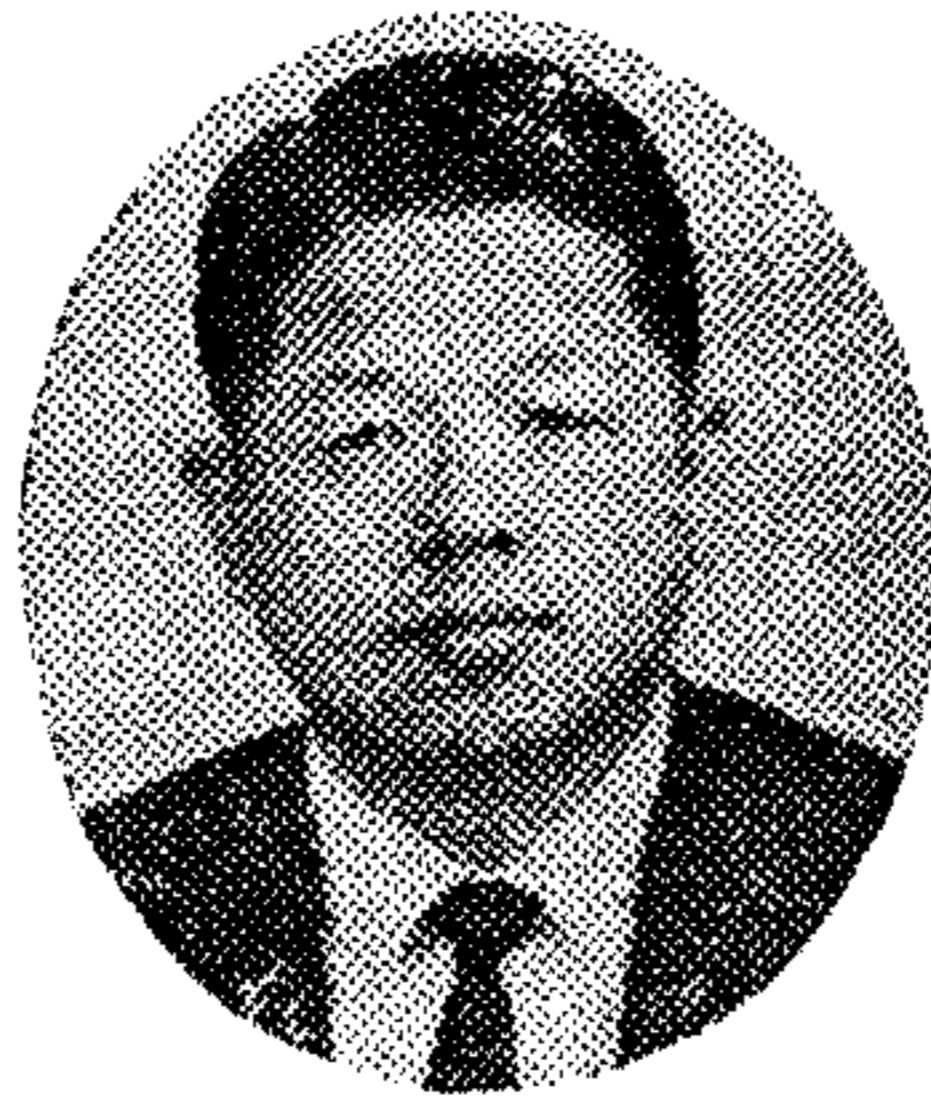
靈長이라 일컫는 人間의 能力은 그 限界가 그어지지 않은채 人間生活을 앞으로 어디로 몰고 갈는지 모를 程度로 高度의 文明과 찬란한 文化를 쌓아왔다.

우리 人間들이 어떤때는 戰爭이란 잔인한 恥部를 들어내면서도 더욱 老木에서 돋는 새순 모양 眞理를 探究하고 學問을 研究하고 環境을 開發하고 開拓하여 一新시키면서 不斷히 努力해온 까닭으로 現代文明의 奇蹟을 이룩한 것이다.

아마 未知에의 排戰이나 不可能에의 征服欲은 우리 人性의 本質인 것 같고 우리의 頭腦 亦是 無限의 性能을 갖고 있는듯 싶다.

「라이트」兄弟에 의하여 飛翔이 試圖된 지 70年 餘에 우리는 지금 달을 달고서는 「뉴스」에 醉하고 있으며 「컴퓨터」에 의하여 「오토메이손」化 된 便利한 器具들로 말미암아 幻想的인 事件이 일어나는 記事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든 文明의 利器들은 아직도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울넘어 잘사는 先進諸國들의 부러운 文明生活에서 이루어지는 일 들인 것이다.



爲政者들의 선명한 主張과 目標를 빈릴 것도 없이 우리는 조출했던 지난날의 文化遺產을 간직하고서 녀녀지 못한 살림살이와 舊態를 면치 못한 生活을 해가며 跳躍의 發展을 피하려 힘쓰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後進性을 벗으려면 實로 비상한 努力과 對策이 講究되어야 겠지만 後述하고자 하는 內容도 이에 도움을 주는 一面이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卽 어떠한 일이든 人和위에서 事案을 分析하고 研究하고 頭腦을 啓發하여 組織에 適用시키고, 하는 등 이러한 일을 能率껏 해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姿勢 卽 科學하는 姿勢를 가져야 겠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組織의 個體를 이루는 사람 사람이 높은 才能과 슬기를 갖고 일을 다룰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떠한 集團이든 그 集團에 繁盛을 가져오고 나아가 한 나라의 繁榮을 圖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가까운 例로 요즘의 事務家は 文案作成處理外에 「타이프」技術도 갖추고 이에 速記術까지 익혔다면 錦上添花로 더 歡迎을 받는다는 點이다. 이것은 모두 多角的인 才能과 能率을 必要

로 하는 競爭時代가 점점 다가옴에 緣由한 것이다.

「타이프라이터」의 솜씨를 지니 速記術은 每事를 科學的으로 分析研究하는 現文明時代에 適應하여 事務能率을 높여 주는 利器의 하나라고 여기는 것이다.

先進 여러나라에 比하여 모든 部面에서 조금씩 뒤진 우리 社會에서 速記界도 그 認識이 外國에서 알려진만큼 大衆 普及이 늦은 것도 認定한다. 그러나 우리의 速記術이 다른 나라에 견주어 손색이 없음도 筆者로써는 速記從事者들과 恒常 接하고 있는 緣故로 잘 알고 있는 터이다.

人間「컴퓨터」라고 自肯할 程度의 그네들이 휘두르는 才氣潑刺한 記筆能力은 驚異的이다. 이러한 技倆은 先進으로의 디딤을 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케이스」를 던져 준다.

普通記筆速度의 5~6 倍에 達하는 速記術의 경우처럼 우리도 每事에 있어서 이 程度의 敏活을 가져 온다면 우리의 文化 우리의 生活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 殘餘

時間의 活用으로 잘 사는 기쁨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며 보다 次元높은 文明社會를 建設하는데 이바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云謂한 速記從事者들이 速記人들이 함께 모여 協會를 結成하고서 이제 그들의 總智를 모아 이 「速記界」를 發刊 그들의 活動과 速記術을 널리 社會에 알리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꺼이 讚辭와 激勵을 보내는 바이다.

일이란 처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차차 익숙해지면 요령과 수단이 생기는 법이지만 일하는 사람은 때때로 처음에 너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차차 의욕이 감퇴되는 수도 있는 것이니 다소 규모는 적어도 알차게 꾸며 나가길 바라며 始終 이디에서나 科學하는 姿勢의 堅持를 再三 強調하는 것이다.

끝으로, 「速記界」가 앞으로는 明實共이 速記界의 發展과 對話를 위한 公誌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期待以上の 成果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受賞消息

- ▲ 鄭源道氏(速記第2係長)는 今年 1月 5日 國會事務處始務式에서 國會議長으로부터 國會模範公務員 表彰을 받았다.
- ▲ 또한 李東一氏(本協會理事長·速記第4係長)는 69年 12月 27日 市民會館에서 開催된 全國模範公務員 表彰式에서 國家로부터 緣條근정勳章을 授與받았다.

● 外國視察消息

- ▲ 每年 實施되는 國會公務員 外國議會制度 視察 計劃에 따라 金鎮基氏 鄭源道氏에 이어 今年에는 安仁榮氏(速記第3係長)가 國會 速記課에서 選拔되어 오는 6月 20日경 渡日約 20日間 日本議會制度를 두루 살펴보게 됐다.

協會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覺悟

理 事 長 李 東 一

解放과 더불어 國權이 回復된지도 於焉 25年!

그동안 우리 速記界가 이나라에 뿌리를 박고 가지를 칠만한 與件을 갖추지 못한 不安定한 社會環境을 克服하면서 우리 速記人들은 그늘속에서나마 숨은 役軍으로서 이 나라의 記錄 文化의 發展을 위하여 盡力하여 왔고 그러한 보람이 있어 비록 許多한 迂餘曲折을 겪었을 망정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成長 發展하여 왔다.

이제 우리 速記界도 成年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熱望하여 오던 社團法人의 認可도 1969年 4月 14日 文化公報部로부터 얻기에 이르렀으며 또한 速記界를 育成하고자 하는 當局의 配慮로서今年度부터는 國庫補助까지 支給 받기에 이르른 것이다.

여기에 이르기 까지에는 우리 速記界를 理解하고 聲援하여 주시는 各界人士와 會員여러분의 協助가 그 밑거름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는 것이다.

이는 成年이 된 우리 나라의 速記界가 發展하고 跳躍할 수 있는 커다란 기틀을 마련하게 만들었고 우리 協會가 確固한 軌道에 오르게 될 디딤돌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오늘 날 成年을 맞은 이나



라 速記界가 그동안 成長 發展하여 오기는 하였으며 이토록 成長「템포」가 늦은 것은 社會의 認識不足 經濟的인 難關等 外的인 要因도

있으나 會員 乃至는 同人들의 “나하나 썬 없어도……” 하는 傍觀的인 思考方式이나 “나만 便하면……” 하는 安逸無事主義 그리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被動的인 精神姿勢가 그 커다란 原因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러나 우리 速記同人들에게 發展과 跳躍을 約束하는 諸般 外的인 與件이 成熟되어 가는 이 마당에 우리 協會로서 하여야 할 事業은 重疊되고 걸어가야 할 길은 아득하며 또한 任務의 重且大함을 생각할 때 이 일의 完遂을 위하여는 全體會員이 舍心協力함으로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人間社會에 있어서는 個體의 힘이 아무리 有能하다고 할지라도 個體의 힘만으로는 아무일도 成就할 수가 없는 것이며 微力한 個個人의 힘이라도 그 힘이 하나로 뭉칠 때 그 힘의 總和는 不可能이 없는 무서운 威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이다.

今年度에 우리協會가 計劃하고 推進하여야 할 事業만 하더라도

첫째 速記의 大衆化를 위한 無料速記講習의 開催.

둘째 速記展示會의 開催

셋째 速記士資格檢定試驗의 實施

넷째 速記競技大會의 開催

다섯째 協會誌의 發刊

여섯째 手筆速記의 研究改良 및 機械速記의 研究

일곱째 國際的인 速記文化交流問題

等 아직까지 우리가 손대지 못하였던 重要한 事業들이 山積하여 있는 것이니 이러한 모든 重要한 事業들을 제대로 遂行하기 위하여는 위로 崔致煥會長님을 모시고 全體會員 여러분이 合心 協力함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會員各者가 協會의 事業을 나의 事業으로 생각하고 協會를 나의 協會로 믿고 일

하는 精神的基調를 이룩할 때 비록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나라 速記界의 發展을 위하여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나 우리의 後輩 後進들에게는 보람되고 榮光된 遺産을 물려주리라고 確信하는 바이다. 보람되고 榮光된 來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一致 團結하여 아낌없는 힘을 傾注 忠實한 言語의 傳達者로서의 使命을 完遂할때 이가 곧 우리 社會의 記錄文化를 위하여 貢獻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 成年을 맞은 우리 速記界도 近視眼的인 我執이나 安逸한 現實忌避에서 脫皮하고 다 같이 協會의 發展과 福된 來日을 위하여 相互協同하고 積極的인 그리고 能動的인 姿勢로서 諸般 難關을 뚫고 總力을 기울여 協會의 事業에 스스로 參與함으로써 各者의 創意力과 叡智를 모아 빛나는 速記文化의 金字塔를 建立하자.

〈國會速記第4係長〉

(消)

(息)

高等學校에서 速記講習

◆ 本協會 事業의 一環인 各級學校速記講習은 第1次的으로 希望校에 限하여 다음과 같이 實行키로 한바 會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協助와 새로운 希望校 發掘에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敎新高等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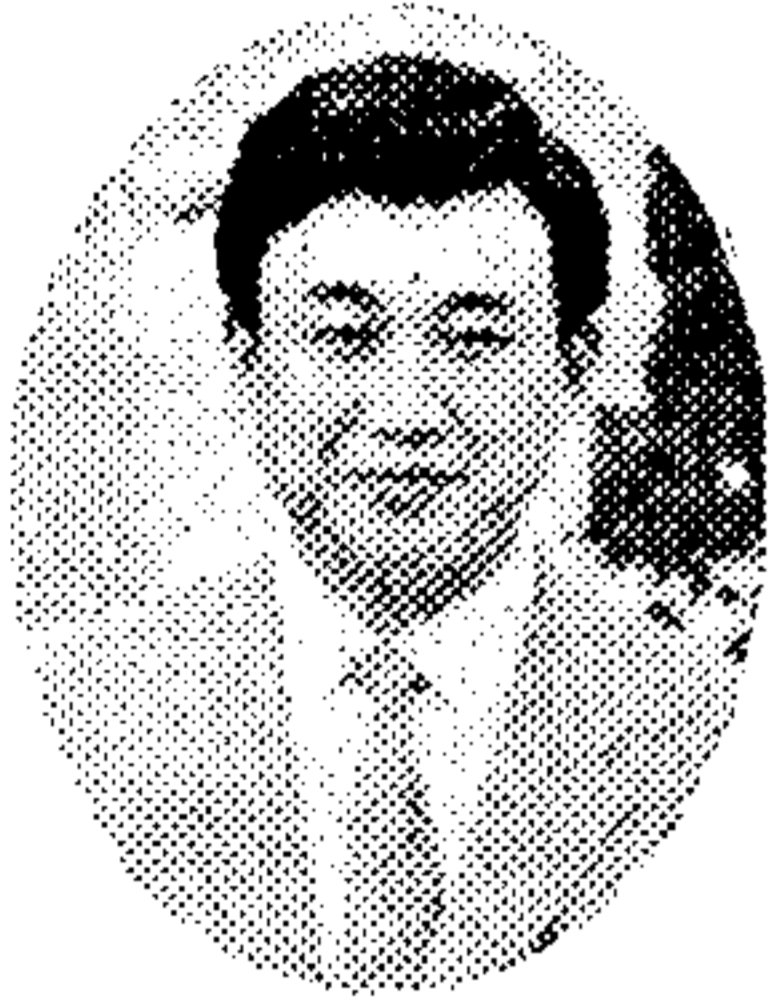
高2學年에 限해 週4時間씩의 速記班을 編成 5月中旬부터 韓鍾烈氏가 高麗法式을 敎授키로 하였다.

△ 서울祥明女子高等學校

亦是 高3學年(職業班 2個班) 120名의 速記班을 編成 지난 4月21일부터 週4時間씩 正規學科目으로 採擇 逸波法式의 田興福氏가 敎授에 擔하고 있다.

當 面 韓 協 會 實 情

總務部長 楊 澈 在



當協會는 前任理事陣과 諸會員의 活動으로 前年度에 社團法人으로 發足했으며 同時에 처음으로 國庫補助 豫算까지 獲得하고 待望의

70年度事業年度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확실히 劃期的인 일로서 70年代의 화려한 出發을 裝飾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 가지 前理事陣의 강한 뒷받침에 이어 새로운 理事陣의 編成이 不可避하게 된 點에 대해서는 섭섭한 感을 不禁하는 것이다.

솔직한 表現으로 事實上的 實務陣이었던 前理事들의 退任은 現理事들을 當황케 했으며 協會運營이나 發展에 多少 蹉跌을 빚어냈음은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協會라는 것이 서로 利害關係人이 모인 集合體이므로 法人體의 運營이란 원래 高度의 人和를 바탕으로 한 後 비로소 諸經驗과 意慾이 要求된다는 事實을 勘案할 때 理解가 가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新任實務陣들은 다음과 같은 隘路를 안고 最初의 社團法人으로서의 活動 最初의 國庫 補助團體로서의 事務를 處理해 나가게 되었다.

1. 社團法人 認可에 따른 具體的 內容의 把握缺如.
2. 國庫補助金 豫算獲得經緯에 대한 情報未熟.
3. 文公부에 提出할 豫算書와 事業計劃書作成의 要領不足.
4. 諸般書類備置와 會長, 新任理事들의 名儀變更(文公부와, 法院)의 雜多한 節次 및 國庫補助金收領의 까다로운 節次的 未熟.
5. 新任實務陣이 文公部國庫補助擔當官들과 세로이 知面을 닦아나가야 한다는 點.
6. 今年 1월에 實施했던 第6回 無料速記講習事業에 대하여 前理事陣에서 豫算만 作成하고 業務把握의 餘裕가 없었던 新任理事들에게 執行케 했다는 點
一言으로 처음 맞는 社團法人과 國庫補助團體로서의 協會運營에 대하여 前執行陣이 殘餘任期를 채우기 前에 全部辭退한데다가 經驗不足인 새로운 實務陣이 들어서서 現況把握의 餘裕 없이 事業을 執行해 나가야 된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即 定款과 會規에 常勤職理事의 職制가 없었다는 點이다.

이제 이와같은 諸般與件을 가지고 實務級部長들은 힘찬 意慾으로 出發하여 諸문제를 打開하고 1/4分期 國庫補助金を 收

領하고 第6回速記講習會까지 마쳤지만 此際에 새로운 當面문제로 登場한 것으로서는 會規에 의한 總務部の 業務範圍를 들 수 있다.

即 總務는 첫째, 國庫補助金分の 現金出納簿와 歲出簿 그리고 自體資金分の 現金出納簿와 歲出簿 또 總資金의 現金出納簿를 作成해야 되고,

둘째, 資金支出의 具備書類로서 物品購入에는 見積書, 稟議書, 購入과 支出決議書, 請求書 領收證을 갖추어야 하며

會議費等 餘他支給은 支出決議書 請求書 領收證을 具備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協會關係의 모든 文書受發取扱과 會費의 徵收 會員의 加入等 會員의 狀況把握 會報 理事會 部長會議關係등의 業務處理와 各種文書備置를 해야 되고

네째는 各部에 事業費의 適時支援을 講究키 위해 文公部에 提出하는 諸般書類作成의 迅速한 處理를 해야하고

다섯째는 會長의 近況을 살피고 理事들과 部長, 會員間의 連絡事項과 文公部(當協會監督機關으로서 監查機關)와의 隨時接觸을 가져야 하고,

여섯째 會員의 福祉에 關한 對策을 講究해야 하는 것이다. 以上에 列記한 事案으로 볼 때 우선 總務 혼자로서만 일하는 印象을 질게 풍겨 주지만 조금 깊이 正視하면 總務部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莫大 業務量임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現下의 實情에 비추어본 總務力量은 各部長間의 人和을 考慮하면서 보다 Political(政治的인)하며 보다 Commercial(商業性의)하고 나아가 좀더 Official(事務的인)한 能力을 驅使할 수 있는 者로서 倣주하는 業務를 강철같이 해 낼 수

있는 誠意와 健康을 가진 者라야 겠다.

이에 相應하여 各部長級 執行陣會員도 굳은 實踐力과 희생정신을 發揮해야만 올해에 計劃한 事業 即 ① 無料速記講習 ② 速記競技大會 ③ 速記展示會 ④ 會誌 4回發刊 ⑤ 資格檢定試驗實施 ⑥ 速記에 대한 座談會開催 ⑦ 速記學術研究等 諸事業을 執行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筆者가 當面문제 打開策으로서 提言하고 싶은 것은

첫째 總務의 業務分擔 案으로 財務와 文書取扱 業務를 分離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로서는 總務理事가 있음으로 總務理事에게 強力한 뒷받침을 해주고 業務移讓을 하는 편법을 適用할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定款과 會規를 改正하여 財務擔當理事를 新設하거나 아니면 現在의 定款에 의하여 事務局을 設置하거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事務局設置는 明年度에도 今年度와 같은 補助金「베이스」라면 資金形便上 어려운 문제가 되겠다.

그러나 事務局設置는 앞으로 協會運營의 能率과 發展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이것은 將來에 닥쳐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今年度는 豫算確定으로 變更이 어려우므로) 執行部署에 대한 給與문제다. 앞서도 言及했듯이 희생정신의 發露는 뚜렷한 目的이 있거나 希望을 줄 수 있는 展望과 相關關係가 있는 것이다.

利害關係人이 모인 團體에서 利害를 떠나서 어떠한 뚜렷한 發展的인 展望없이 희생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우리 社會를 經濟社會라 하듯 우리 協會가 커갈수록 執行部에 대한 給與는 앞으로 考慮되어야

할 命題로 본다.

本誌에는 當面한 協會實情에 대하여 우선 上述한 두가지 提言을 하면서 끝으로 筆者가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감히 솔직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으면서 諸會員들의 叱正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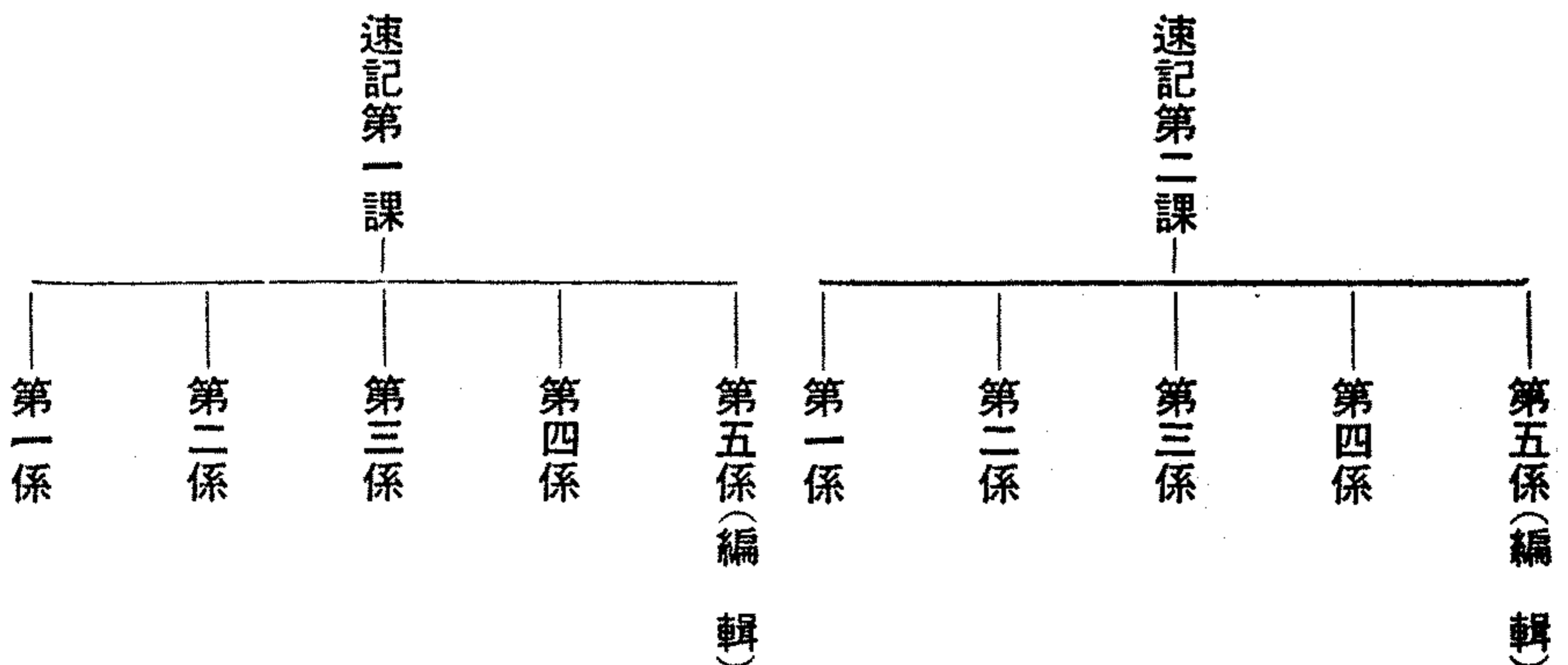
「文公部가 있는 中央廳까지 걸어 가면

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協會의 發展을 가져올수 있을 것인가만 골똘히 생각하였겠는가?

내가 果然 이런 일을 하므로서 무슨 所得이 있을 것인가하고 懷疑만 느꼈겠는가?」

速記課改編案

國會事務處當局에서는 最近 速記課 改編案이 擡頭되고 있어 注目을 끌고 있다. 그 內容을 잠깐 훑어보면 現在의 一課 八係(編輯二係포함)를 二課十係(編輯二係포함)로 機構를 擴張하는 것으로서 速記士 96名 編輯 38名 庶務 2名 配付 2名 錄音 2名 調查統計 2名 總 154名의 大團員이 되는바 이는 從來 지연發刊되었던 常任委員會 會議錄의 迅速發刊을 爲한 機構改編 作業인 것으로 尙今 계속 研究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0 年 度 事 業 概 觀

事業部長 申 世 華

70년도는 本協會가 社團法人으로 出發한 후 계획한 事業을 活潑히 또 成功的으로 實踐해야 할 제 1차년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70년은 本協會



發展의 契機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절감하게 된다. 지난날 모든 與件의 缺如에도 불구하고 급년에 들어서서 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基盤을 닦아놓은 것은 오로지 全會員과 任員들의 協調와 努力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며 그 노력의 結晶으로서 이루어지는 事業인 동시에 速記의 必要性이 점차 高潮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맞추어 推進하게 되는 事業인 만큼 그 意義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제 70년도에 本協會가 계획한 주요사업을 大別하여 보면 ①無料速記講習 ②速記競技大會 ③ 速記展示會 ④ 會誌「速記界」발간 ⑤ 速記學術研究 ⑥ 資格檢定 시험 ⑦ 수요처 개발을 위한 각 기관과의 速기에 대한 座談會開催 등으로 볼 수 있다.

1. 無料速記講習

이 무료속기강습은 이미 서울에서 四回 釜山에서 1회를 實施했으며 금년 사업으로서 이미 1월중에 겨울방학을 이용 20일

간 속기를 배우고자 하는 男女大學生 및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강습을 통하여 속기에 대한 기쁨을 잡아주는 등 많은 成果를 거두었으며 이 事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이의 폭을 넓혀 방학뿐 아니라 年內를 통하여 大學生, 各部處公務員 法院 및 檢察書記, 言論機關從事者 (각 신문통신사 및 방송국기자) 各部處 및 企業體의 秘書와 記錄擔當者, 高等學校 및 大學校의 巡回講習, 또한 本협회 支部를 통한 地方巡回강습 등을 하여 약 2,500명을 對象으로 각 30일간의 短期間에 無料速記 강습을 실시하여 속기학에 대한 인식과 속기의 大衆化를 도모하고 업무 또는 생활에 속기술을 活用케 함으로서 速記人口의 增大를 期하고자 할 계획이다.

2. 速記競技大會

속기경기대회는 과거 1956년 7월 21일과 1957년 7월 21일 2회에 걸쳐 實施한 예가 있다. 그러나 금번의 競技大會는 社團法人으로 된 후로는 제1회가 된다. 이는 速記士들이 지닌 實力을 서로 겨루어 보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競技大會는 평소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實力을 培養하고 技術과 資質向上을 도모하는 데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금년도 제1회 競技大會는 5月中에 實施할 계획으로서 여기에 特記할 것은 본래 本협회는 한글속

기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번속기 競技大會와 資格檢定 시험에는 英文速記도 포함시켜 본협회가 管掌하게 될것이다. 앞으로 加入與否 문제는 理事會 또는 總會의 承認사항이겠지만 速記人の 總集結體로서 門戶開放을 해야된다는 면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금번 競技大會는 A級 B級으로 區分하여 실시하게 되며 入賞者에 대하여는 賞狀과 푸짐한 副賞을 수여하게 되어있다. 현재 全會員이 그 영예를 차지 하기 위하여 實力練磨에 猛練習中에 있는줄 안고 있다.

3. 速記展示會

속기전시회는 더욱 중요한 사업의 하나다. 이는 과거 1950년 3월과 1958년 10월에 國會 院內에서 2次 실시한바 있어 당시 큰 成果를 올린것으로 기억하지만 금번의 速記展示會는 7月中에 約 7日間 院內에서 뿐만 아니라 院外에서도 一般公開로 速記學術의 具體的인 사항과 資料를 展示하여 速記에 대한 일반의 認識과 理解를 높이고 속기보급에 박차를 가하여 速記界의 발전을 기할 계획으로서 더욱 중요한 사업인 것이다. 또한 速記展示會는 과거에 실시했던것과 같이 순 속기문체를 중심으로한 展示와는 달리 금번에는 速記文體 자체뿐 아니라 多樣的으로 速記人の 才質및 個人技인 書藝, 繪畫, 寫眞, 速記人の 속기업무 以外の 활동사항등 속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展示하여 對外的으로 誇示해볼 계획으로 있는것이다. 全會員의 훌륭한 작품이 기대되는 바이다.

4. 회지「速記界」發刊.

이 또한 重要한 事業의 하나다. 過去에

「速記文化」를 발간한바 있으나 금년부터는 면모를 一新하여 季刊으로 「速記界」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 「速記界」는 속기학술의 研究發表, 會員相互間의 資質向上과 회원의 動向및 일반에의 P.R이 될 會誌로서 國刊 40면, 1회에 500部를 발간하게 되는바 현재 많은 회원과 各界 人士로부터 玉稿가 投稿되고 있어서 일반 學術誌에 못지 않은 會誌로서 발전이 기약되는 사업이다.

5. 速記學術研究

속기술 연구는 한국에 速記가 創案된 이래 꾸준한 노력으로 研究되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현대 文明社會의 발달에 맞추어 그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手筆速記를 比較하고 研究改良하여 高速을 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科學化 되어가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機械速記를 研究 開發하여야 할 시기가 到來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本協會에서는 各 法式別로 研究委員을 選任 研究委員會를 構成했으며, 현재 활발히 연구사업에 專念하고 있다.

6. 速記士 資格檢定試驗

자격검정시험은 전기 속기경기대회 관계에서도 記述되었지만 한글속기뿐만 아니라 英文속기도 본협회에서 管掌하게 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試圖되는 사업이지만 外國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勿論 速記士는 완전한 속기기술 습득과 실력을 갖춘 者에게만 이 資格이 부여되는 것이지만 속기 亦是 基礎로부터 단계를 거쳐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것이므로 8급부터 1급으로 구분하여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는 속기경기대회와 같아 5월중에 실시할 예정

으로서 속기인의 자격과 실력을 制度化하여 속기인의 資質向上과 社會正義를 確立시키기 위하여 만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7. 속기에 대한 座談會

우리 나라는 아직 속기를 活用할 여지가 많으나 需要處가 개발되지 않아 速記界가 발전할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는 原因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社會 各界에서 速記가 活用되도록 하기 위하여 5월初에 본협회 幹部와 國會事

務處 文化公報部 法院行政處 및 檢察廳 등 各계 幹部들을 모시고 협회의 現況 설명과 더불어 속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속기의 필요성을 周知시켜 수요처 개발을 위한 좌담회를 開催할 계획이다.

이상 본 협회의 70년도 主要事業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全 會員과 速記界를 아끼주는 社會 各界의 協조와 贊助에 의하여 계획한 사업이 10분 成就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바이다.

<發 言 速 度>

調査統計部에서는 그동안 7代 國會議員의 發言速度를 「체크」해 본바 1分間 3百字 이상의 發言速度 趨勢가 漸增되어가는 느낌이다. 以下 300字 以上の 發言議員과 200字 以下の 發言議員을 參考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300字 以上

尹 致 暎 議員	413字
金 柄 淳 "	364 "
李 浩 範 "	359 "
盧 載 弼 "	337 "
金 益 俊 "	333 "
金 應 柱 "	327 "
朴 炳 培 "	326 "
金 周 仁 "	326 "
金 守 漢 "	325 "
李 萬 燮 "	324 "
李 炳 玉 "	322 "
金 顯 基 "	321 "
白 南 穩 "	315 "
張 承 台 "	313 "
鄭 海 永 "	312 "
金 大 中 "	312 "
金 宇 榮 "	308 "

金 振 晚 議員	306字
梁 會 璣 "	3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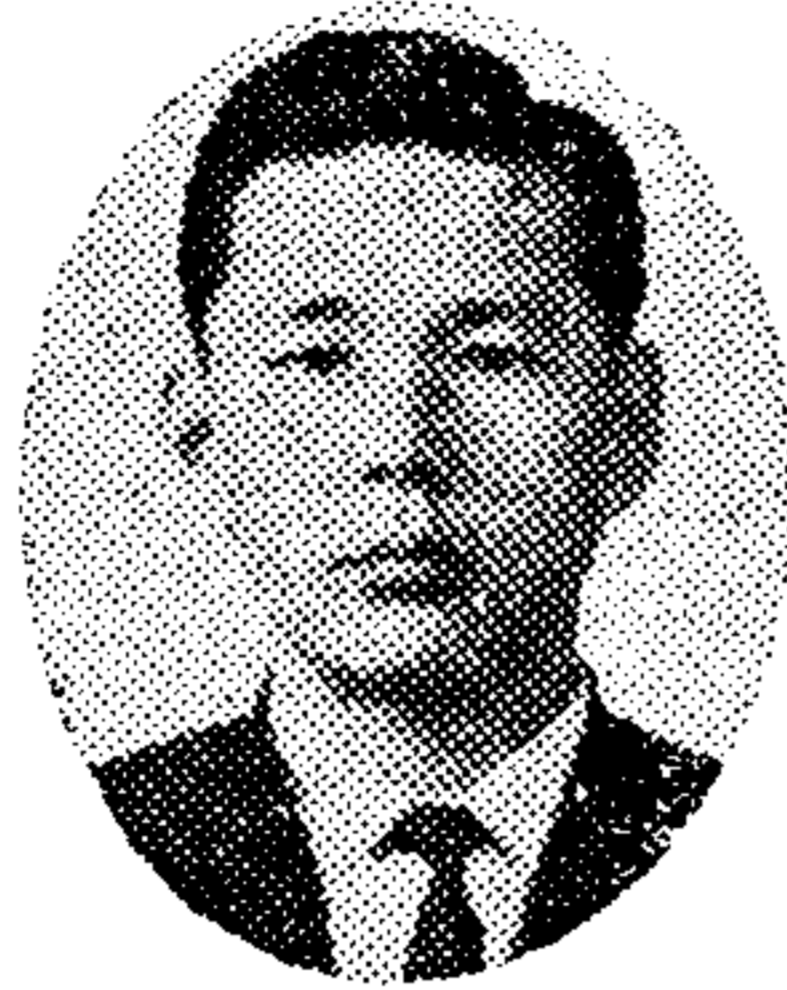
◆200字 以下

李 孝 祥 議長	138字
張 炯 淳 議員	148 "
高 興 門 "	152 "
鄭 求 暎 "	154 "
李 東 元 "	161 "
芮 春 浩 "	162 "
李 載 雨 "	168 "
金 星 鏞 "	172 "
閔 穉 植 "	177 "
李 相 武 "	177 "
李 玄 正 柱 "	178 "
李 載 澄 "	178 "
李 聖 秀 "	180 "
尹 在 明 "	183 "
宋 元 英 "	186 "

資質向上과 資格檢定

資格審査委員長 韓 鍾 烈

우리 速記는 祖國光復과 발맞추어 자라오는 동안에 이제 겨우 成年式을 끝낸 어른으로서의 社團法人 大韓 速記協會가 發足 되었다.



따라서 各分野에 걸쳐 能熟한 솜씨로 이 나라 歷史를 點綴 하는 史官으로서의 莫重한 責任과 歷史를 지켜보는 儼正한 目擊者로서 後世에 傳承할 證人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더욱 重大하여졌다고 느끼는 것은 이 사람 한사람의 感懷는 아니리라.

이러한 重大한 時點에 있어서 이제 速記成年이 된 우리 速記界는 어떠한 進路를 向해 邁進해 나가느냐 하는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무릇 一般 社會에서도 成年이 된 後에 내딛는 첫발이 그 사람의 一生을 左右 하기에 그 岐路에서 許多히 苦悶하는 것을 보아 온다.

回顧컨대 우리 速記界는 祖國光復後 20 餘星霜 갖은 辛苦와 研究開發 끝에 오늘의 成熟된 基礎를 닦아왔고 또 앞으로도 보어나는 長足の 發展을 企해야 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速記人 各自의 資質을 더욱 向上시켜 祖國近代化에 발맞추어 이 나라 記錄文化의 一翼을 能히 擔當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바이다.

그러면 如何한 方途로서 資質向上을 가져와야 하겠느냐 하는것은 速記人 各者의 教育 知識 德望은 勿論이 거니와 各個人이 習得한 速記法의 改良發展 및 새로운 創法 또는 研究開發을 게을리지 않고 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總集大成하여 速記學術의 情報交換 및 善意의 競爭을 치열하게 展開시켜서 總體的인 面에서 우리의 速記가 衡平있게 같이 發達해 나가야 되리라고 믿는바이며 이렇게 發達시킬려면 이를 이어주는 媒介體가 있어가지고 組織的이고 制度的인 面에서 이끌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思料되며 이를 爲해서는 우리 速記人의 總集結體인 社團法人 大韓 速記協會를 통해서 하나의 傳統的인 系統 밑에서 資質向上의 길을 닦아 나아가서 近代化된 祖國發展에 이바지 하여 歷史를 點綴하는 史官으로서의 빛나는 業績을 後世에 이어주게끔 더욱 奮發해서 힘차게 한걸음 한걸음 내 딛어서 大行進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하루아침에 「로마」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과같이 一朝一夕에 資質이 向上되지는 않겠지만 쉬지않고 一步一步 前進하여 나아가간다면 期必코 達成 되리라고 믿어 疑心치 않는 바이다.

資質向上을 組織的이고 體系있게 制度的인 面에서 어떻게 發展시켜 나아가느냐 하는것은 우리 速記同人들의 共通課題로

서 研究해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되며 우선 理想的인 것은 辯護士, 計理士, 醫師, 藥師와 마찬가지로 國家考試制를 通하여 資格檢定을 맞는길이 있을 것이다.

이러자면 먼저 速記士法이라는 것을 法制化 시켜서 그 法에 依據해서 施行하는 檢定試考制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速記가 前者에도 말한바와 같이 이제 成年式을 마친 20歲 밖에 안된 若冠으로서 社會에 그 存在를 널리 認識시키지 못한 데에서 一般社會 特히 關係當局에서 等閑視 되어온데 基因이 되고 있음을 우리 速記同人들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또 아울러 우리 自身들이 加一層 努心焦思해서 온누리에 速記의 認識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粉骨碎身 길을 닦고 幅을 넓혀 나아가서 速記士法을 爲始해서 資格檢定을 國家考試制로 하여 速記士의 權威와 速記의 重要性을 認識시키는데에 온갖 心血을 기울려야 되리라고 다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것은 우리의 最大의 目標이며 理想이지마는 現時點에 있어서의 우리의 位置는 그야말로 荒無地를 開拓해 나아가야 될 立場에 놓여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스스로 도우는자를 하늘은 도운다」는 말과같이 우리가 이대로 앉아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닦아야 하지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로의 洽足하지는 않지만 資格檢定試驗과 速記競技大會를 通해서 資質向上 과 速記이 重要性을 認識시키는 一石二鳥의 길을 本協會의 年例事業으로서 닦아왔다.

例를 들어서 아무리 性能이 좋은 車를 優秀하고 有能한 運轉士가 高性能의 기를 넣고 달린다 하더라도 달릴 수 있는길

高速道路가 없으면 自己의 能力 實力을 發揮할 수 없는것과 같이 우리 速記人이 自己의 資質을 十分 發揮해서 나타낼수있는 길 高速道路를 닦아야 되겠다해서 이 難工事を 本協會에서 꾸준히 닦아서 今年부터 文化公報部에서 國庫補助를 받아 年例的으로 速記競技大會를 開催하며 또 速記人의 資質向上策으로서 資格檢定을 今年부터 年例的으로 實施하려고 하고있으며 第1回 資格檢定을 大韓商工會議所와 朝鮮日報社의 後援을 얻어 不遠間 實施할 豫定으로 지금 準備에 着手하고 있다.

上述한 바와같이 速記競技大會, 資格檢定試驗이라는 高速道路를 本協會 事業으로 千辛萬苦끝에 닦아 왔으니 그동안의 速記人各者가 研磨해온 自己의 實力을 이 高速道路上에서 마음껏 發揮하여 自己의 힘을 과시 各己 資質向上에 이바지하여 주었으면 이 高速道路를 마련한 本協會로서는 더 以上の 보람이 없을것이다.

오는 5月中旬에 實施할 第1回 速記士檢定試驗을 紹介하면 1級서 8級까지 두었으며 應試資格은 職業速記士를 目標로 하며 修學하는 者以外에 各級 學校 또는 學院이나 講習會를 通해서 速記를 배운 아마추어 에게도 最低級數인 8級서부터 資格을 얻을수 있게 門戶를 開放 하였다.

이 門戶開放의 意義는 中, 高, 大學生 및 一般人에게 速記를 널리 認識시키고 速記人口의 低邊擴大를 꾀하여 이로 因하여 優秀한 速記人을 발탁하자는데에 있다.

여기에 參考로 級數別의 速記字數를 列舉하면 1級이 1分間 320字 以上 2級이 300字 以上 3級은 270字 以上으로서 이는 職業 速記士를 目標로 研修하는 者를 爲해 設

定 했으며 試驗時間도 國會 其他 公共團體에서 實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演說體 5分 論說體 5分 計10分을 보고 正確度도 95%以上이라야 資格證을 授與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4級은 240字以上 5級은 200字以上 6級 180字 以上 7級은 150字以上 8級은 120字以上으로서 職業職記士를 指向하지 않는 部分에서 活用하는 學生이나 一般人으로서 秘書速記 기타 日常生活에서 速記를 活用하는 사람들에게 速記意慾을 鼓吹시키는 意味에서 試驗을 보되 演說體 3分 論說體 3分 計 6分을 보아 正確度 95%以上인 者에게 資格證을 授與하여 上位級數에 挑戰 하려는 意慾을 불러 일으켜 줌으로서 우리 速記의 發展을 이룩하여 보자는 意圖에서 實施하는 만큼 앞으로의 期待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이에 特記 할만한것은 1級서 8級까지 自己가 應試한 級數에 있어서 95%未滿 90%以上을 獲得한者는 最下級數인 8級을 除外하고는 自己가 應試한 級數의 次級數인 級數의 資格證을 授與하여 다시 克服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서 더욱 憤發하여 資質向上을 期하도록 하였다. 以上 上述한 것은 新人 發掘과 登龍의門을 열어놓은 것이며 既成人들의 資質向上은 別途로 이것도 5月中旬에 資格檢定試驗과 併行해서 實施하는 第1回 速記競技大會를 통해서 이룩해 보자하는 것이다.

既成人으로서 各者가 研磨해온 自己의 速記術과 技量を 善意의 競爭으로서 자웅

을 겨루면서 相互間의 情報交換과 資質向上을 期하자는것이며 또 아울러 速記의 Olympic으로서 榮光의 champion을 選定하며 그동안 勞苦와 速記發展에 이바지한데 對해서 致賀하자는데에있다. 이 競技大會는 正級 準級 둘로 나누며 正級은 300字 以上 準級은 250字以上으로서 各級마다 1, 2, 3等과 장려상을 두어서 副賞으로서는 1萬원에서 3千원까지를 支給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本協會의 慶事스러운 快事를 한가지 紹介해 올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英文速記士 資格檢定을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에서 實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速記外에 外國速記까지 總망라해서 名實共히 速記人의 集結體로서 君臨하게 되었음을 여러 同人들과 慶賀하고 자랑해 마지않는다.

以上 말한바와 같이 速記의 資質向上은 各己 自己 나름대로의 研究開發과 心血을 기우려 發展해 나가되 組織的이고 體系的인 制度밑에서 한덩어리가 되어서 本協會가 마련한 資格檢定試驗과 競技大會를 통해서 結實을 보도록 付託하며 아울러 速記人의 資質向上을 爲해서 千辛萬苦끝에 닦아논 우리들의 高速道路를 마음껏 있는 힘과 技量を 다해서 超速度로 달려 이 길을 통해서 많은 速記同人들이 最短時日內에 各己意圖한 바대로 大成해 주길 빌 뿐이다.

☆

☆

☆

☆

第六回 無料講習과 그 成果



研究委員長 李 康 賢

今年은 우리協會가 國庫補助에 依한 老
大한 事業計劃을 實踐해야 할 初年度이다
이 事業을 成果있게 完遂하려면 무엇보다
全會員이 一心同體가 되어 活動해야만 達
成할수 있을 것이다.

今年度 첫 事業으로 本協會의 年例事業
인 第6回 無料冬季速記短期講習會가 지난
1月 14日부터 2月 3日까지 3週間に 걸쳐
受講申請人員 745名을 2個 法式班(逸波班
東邦班)으로 編成 各各 建國大學校와 本
協會指定學院인 東邦速記學院에서 實施하
였다. 本來의 計劃은 單一法式만으로 講

習할 計劃이었으나 豫想人員의 超過로 收
容能力上 不得已 二個法式班으로 編成 講
習會를 無難히 끝마쳤다.

事業上으로 본다면 豫想人員보다 超過
하였기 때문에 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筆者도 講義를 直接 擔當하였기 때문에
講習會 成果를 分析하기엔 외람되지만 研
究委員長의 立場에서 統計와 여러 資料에
依해서 列舉하겠다.

6回 講習會를 擔當했던 5名의 講師들은
그야말로 使命感에서 熱意와 誠意를 傾注
하였음은 6回講習 修了生 324名을 對象으
로 蒐集한 綜合設問中 몇가지 項에서 뒷
받침 해주고있다.

「成果分析」

ㄱ. 速記를 계속 배우고 싶습니까? 의
應答者中 더 배우고 싶다가 324名中
275名 86%로 나타난것으로 보아 受
講生中 많은 人員에게 趣味를 붙여
준點을 들어 成果를 거두었다고 볼수
있다.

ㄴ. 친구에게 速記를 배우라고 권하겠
습니까? 의 應答者 324名中 293名인
90%가 권해보겠다는 應答으로 미루
어 보아 PR面에 큰 成果라 본다.

ㄷ. 講習期間이 適當한가? 짧은가?의
設問에 짧다가 應答者 324名中 302名
93% 絶對多數의 受講生이 期間이 짧다
는 應答이다. 이項은 1回때부터 6回
까지 같은 應答으로 나타나 있다.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겨우 趣味를 붙
여 할만할적에 修了가 되니 안타깝다는
表現인데 이點은 特히 次回부터 再考 할
만한 項이라 본다.

위의 몇項을 分析한 것파 같이 成果를
거두었다고 본다.

「1회에서 6회까지의 總評」

回数	受講人員	修了人員	率(修了生百分率)
1回	514名	234名	46%
2回	450名	218名	48%
3回	420名	228名	54%
4回	451名	242名	54%
5回	854名	540名	64%
6回	745名	324名	44%
計	3,434名	1,786名	52%

위의 統計에 나타난 것과 같이 修了生 52% 程度로 밖에 成果를 못거둔 點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쪽엔가 缺點이 있다고 본다.

3週間の 短期講習 受講申請者中 半數程度가 落伍로 나타난 現實은 1회에서 6회까지 採擇되어 敎授한 어느法式을 莫論하고 短期普及用으로는 速記方式이 어렵다는 結論이다. 많은 受講人員이 參集하는 講習會를 契機로 해서 붐 造成을 못하고 있는 現狀下에서는 大衆化의 길은 멀고도 멀다.

約半 程度의 落伍現狀을 綿密히 分析한다면 몇가지 原因이 있다고 본다.

筆者가 第1回 無料速記講習 修了生을 對象으로 蒐集한 設問分析 結果를 速記文化 創刊號에 掲載한 것을 參考로 본다면 設問中 受講動機 問는項 「受講動機가 무엇입니까?」의 應答에서 速記를 알기위해서가 53.6%로 分析된 結果와 같이 目的意識 없이 受講하였기때문에 落伍率이 높았다는데도 原因이 있겠지만 더큰 原因 몇가지를 詳說하겠다.

첫째 短期講習을 敎授한 어느 法式을 莫論하고 짜임새 있는 短期「코스」의 敎案없이 專門速記士 養成 敎案中에서 간추

린案으로 講習에 臨하였다는 點을 들수있다. 受講生의 大部分이 짧은 期間에 큰 부담없이 배워 筆記生活에 應用 하겠다는 慾求를 充足시킬 만한 講義가 못되었다는 點이다.

둘째 講習의 意義를 살리기 위해 짧은 期間에 基本文字와 簡易한 略符略字를 注入한데서 온 無理로 본다. 이 點은 앞에서 記述 하였지만 筆者의 經驗으로도 지금까지의 3週間の 分量으로 4週에 講義한다면 이 點은 多小 解消 되리라 본다.

셋째 財政과 直結되는 問題이지만 副敎材의 補充이다. 即 副敎材라 하면 正確한 角度와 길이를 習得 시키려면 速記 “노트”가 必要 할것이며 그날 그날 배운 基本文字와 略符 略字를 익히기 쉽게 修練帳 形式의 副敎材가 補充되면 더 큰 成果를 거둘것으로 본다. 위의 여러項을 들어 講習을 主催한 우리의 缺點을 列舉 했다.

앞으로 研究委員會에서 學術上의 여러 問題들을 研究檢討 하겠지만 各法式 研究者들의 좋은 研究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同人中 一部에서는 速記 普及의 捷徑은 簡易한 速記法을 協會 研究委員會에서 創案해서 普及 하자는 說이 있지만 이 問題에는 여러가지 隘路와 難關이 있어 덮어 두기로 한다.

今年度 事業計劃中 特히 言論機關 從事者 및 各機關의 記錄擔當者를 위한 無料講習이 計劃 되어있는데 이 講習은 實務와 直結 시켜야 되니만큼 이 講習에 對한 筆者의 構想을 開陳해 보겠다.

從前 講習은 學生 및 一般人에게 一人一技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同時에 PR을 위한 講習 이었지만 上記 講習會 受講 對象

者 全員이 職場人들 이고 그들의 職務性質上 速筆(普通筆記速度의 2~3倍)를 要하는 點을 勘案해 불대 短期間에 배운것을 十分 應用 할수 있도록 하려면 基本文字를 익히기에 많은 時間을 所要했던 從前의 講義 方法과 달리 基本文字는 各者의 習慣 대로 普通文字(한글)로 쓰게하고 速記 法의 略字 略符를 混用 시키는 方法을 指導함이 보다 짧은 時間에 배운것을 實務에 效果있게 應用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結 言」

講習 回數가 늘어 갈수록 受講人員도 漸增되어 가고 있는 現實은 大衆과 速記와의 거리가 漸次 接近 되고 있다는 것을

立證해 주고있어 우리 全體速記人에게 鼓舞的인 希望을 안겨주며 速記人이 恒常 念願하고 또 앞으로 반드시 展開해야 할 速記의 大衆化라는 指標 達成에 매우 希望的인 樣相을 보여 주고 있는 反面에 速記의 普遍化라는 課題를 提示해 주고 있다. 이 時點에 있어 既性法式이 研究改良되어 가장 理想的 速記方式인 即 高速度의 速記도 可能하고 初·中等編을 短期間에 習得하면 事務速記(非專門速記)도 名實 共히 實用 可能한 速記方式으로 面貌를 갖춘다면 우리나라의 速記文化 向上과 大衆化에 一大 轉機가 될 것이다.

(東邦速記學院 副院長)

國會速記士養成所近況

5·16革命으로 暫時 그 養成機能이 斷切됐던 國會 速記士養成所가 事務處高位當局의 立法活動이 結實을 맺어 지난 1968年 2月 3日 새로운 모습으로 甦生한 速記士의 産室을 마련했음은 周知한 바이거나 그동안 敎師陣 一同의 피어린 指導로 이미 2期生을 輩出했고 今年度 新入學生 100名을 또 收容 指導함으로써 이제 튼튼한 기틀이 마련됐다. 特別히 2期生의 경우부터는 새로 創出된 議會法式을 敎授하고 있어 자못 그 成果가 기대되고 있는 바이다.

參考로 그동안 卒業生의 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期生 : 680名의 應試者中 60名(男42·女18)이 合格, 28名(男18·女10)의 卒業生을 낸바 이중 韓國産業能率本部에 1名(申彥華) 文公部對共課 1名(李建植), 慶南 南海郡廳 1名(李一金), 韓國나이론 코롱商社 營業部 1名(李桓範), 調達廳外資課 1名(具寬謨) 國會事務處에 6名(河良培, 高隆繁, 玄柄高, 朴大成, 金致元, 李永烈)이 就業되는 좋은 成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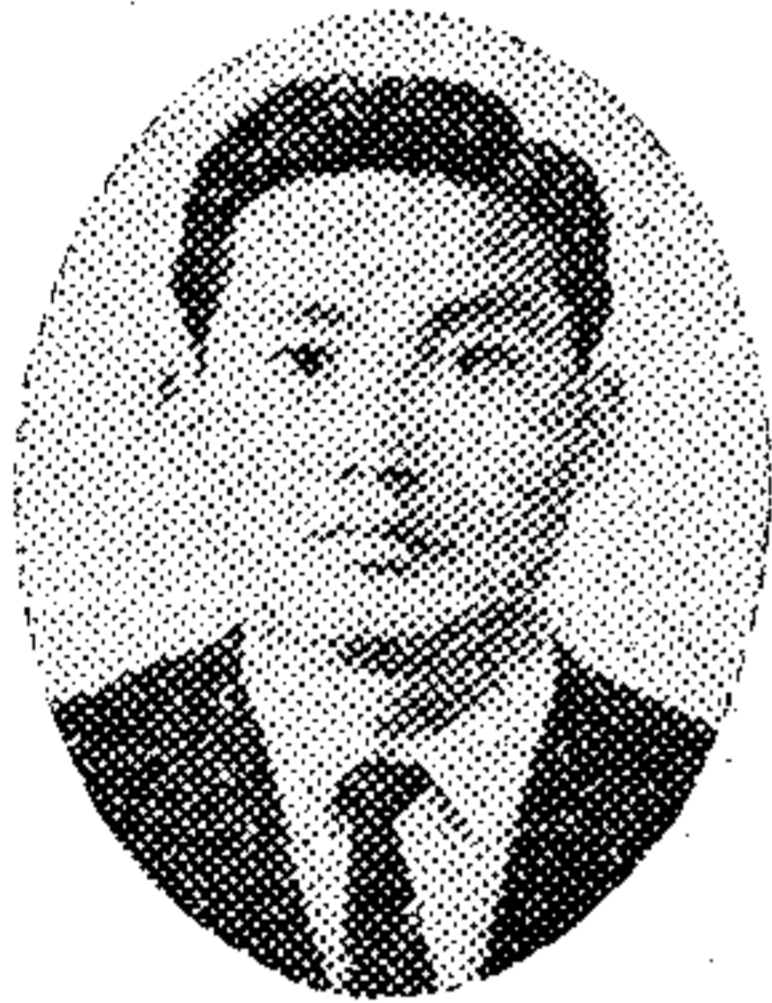
○ 2期生 : 648名이 應試 100名(男67·女33)이 合格, 그중, 30名(男17명 女13명)의 卒業生을 낸바 上記한 바와같이 이들은 議會法式의 첫 輩出者들로서 4月末경부터 있을 各種 採用시험에 어느정도의 成果를 올린 것인지 자못 期待가 크다.

○ 3期生 : 416名의 應試者中 100名(男67명 女33명)이 合格, 現在 1年間의 高된 受講에 온 フィット를 올리고 있다.

速記職再評價論

—外誌에서—

宣傳部長 梁 源 龍



조셉. J. 스윈씨는 1911年 11月 26日生으로 58歲가 된 美國下院 速記士이다. 速記方式은 「피트맨」系의 手筆式으로서 1965年 以前까지는 美國上院에서 勤務하고 있었다.

그가 最近에 傳하는 美上院速記士의 勤務狀況을 훑어 보면 上院의 本會議(The Sessions of the Senate)는 통상 正午 12時에 開會되며 午後 6時에 散會된다.

上院 本會議速記士는 全員 8名으로서 그중 2名은 速記監督官이며 나머지 6名이 10分 交代로 速記에 임하고 있다. 즉 1번 타자가 正午 12時부터 始作했다면 다음 12時 10분에 交代하고 12時 20分까지 速記를 하므로서 다음사람과 交代가 된다. 그러므로 그 10分間은 本會議場에서 速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速記를 마친 速記士는 약 45m 떨어져 있는 速記士事務室에 돌아와 「테타폰」에 방금 써가지고 나온 速記原文을 全部 吹入하게 되면 待期하고 있는 다섯사람의 「트랜스 그라이버」가 순서에 따라 번문에 착수하므로서 速記士가 그 速記原文을 취입하는 것이 끝남과 동시에 그 速記原稿는 文字로서 완전히 번역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면 速記士는 번문되어 나온 速記原稿를 자기 速記原文과 대조하는 作業에 들어가는데 이때에 삽입 또는 消除해야 할 文句, 修文을 해야할 點. —물론 이때는 그 內容을 變更해서는 안된다—그리고 最終적으로 그 速記原稿는 美國上院 規則에 適合한 것인가 이러한 것을 點檢하게 된다. 現在 美國 兩院의 本會議에서는 「스테노 타이프」 速記士는 쓰고 있지 않으며, 단지 委員會의 速記에서만 쓰이고 있다. 上院 本會議의 速記業務量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本會議速記士가 委員會速記에 임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보통 上院 本會議速記士(Official reporters of debates)는 현직에 오기 전에 위원회 속기에 종사한 사람이 大部分이다. 또한 下院 本會議速記士는 上院과는 달리 5分 交代制로서 이는 秩序整然한 上院에 비해서 下院은 活氣에 넘치고, 比較的 動的인 議事進行에서 緣유된

것이라고 보아진다.

여기에서 하나 特記할 것은 上院速記士 그랜트. E. 페리(Grant E. Perry)에 관한 이야기다. 이 사람은 그레그式 速記士로서 Gregg diamond medal 과 全美速記士協會 優秀速記士證 保持者인 바 자신이 上院速記士로서 美聯邦議會 上院本會議錄(Congressional record of Senate)작성에 분망한 가운데에서도 速記士의 未來像을 그리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卽 Perry 씨가 全 美國速記士協會(NSRA)의 機關紙 The National shorthand Report 1969年 1月號에 寄稿한 「音聲識別專門家로서의 速記士 (The reporter as Discriminator)」라는 論文을 中心으로 해서 그의 速記職再評價論을 알아 보기로 하자.

—「어쩐지 마음이 딱 갈아 앉아 있다. 이런 때에 速記士의 將來를 생각하면 暗膽할 뿐이다. 堤防의 취구멍을 손으로 막고 惡戰苦鬪하고 있는 和蘭 少年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少年의 한 손은 錄音器에 또 한 손은 速記의 原文에 刻一刻 怒濤와 같이 흘러 나올려고 하는 사람의 肉聲을 必死的으로 制禦하려는 이 瞬間의 速記士의 손은 和蘭 少年의 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도 現實的이기에 웃을 수도 없다」—

上院 速記士 Perry 氏는 現代 科學技術의 進歩를 正面에서 받아 드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런 科學技術을 하나의 巨石으로 친다면 그 巨石앞에 세워져서 壓迫感을 갖는 것은 速記士만이 當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Computer 속에 雜多한 法律條文을 집어 넣고 必要할 때에 必要한 條文을 곧 빼낼수 있도록 하는 Programing 이 現在 進行中에 있지만 그런 式으로 해서 裁判關係 事務가 Computerize 된다면 速記士는 勿論 辯護士도 裁判官도 必要없게 된다는 理由가 된다. 自動車의 缺陷의 모든 것을 電子工學的으로 찾는 自動車 缺陷檢査所는 지금 벌써 實用段階에 들어가 있으며, 人間의 疾患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한 方式으로 診斷되는 時代가 멀지 않아 곧 온다고 하고 있는 이 때다.

Perry 氏는 速記士라고 하는 職業이 갖는 不安定性을 肯定하고 있다. 그것은 速記라고 하는 職業에 만이 갖는 特有한 現象이 아니기 때문이다. 現代는 많은 職業이 不安定狀態에 있다. 特히 傳統的으로 누구나 認定하고 있는 專門職種에 그것이 더 甚하다.

우리들 速記職業을 包含해서 모든 專門職種은 이제 再評價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職業의 存在가 眞實로 正當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一應 다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스피드」를 速記의 가장 重要한 武器로 생각해 왔다. 우리들 速記士로서의 適, 不適을 決定하는 唯一한 方法으로서 「스피드, 테스트」를 實施하고 있는 實情이다. 科學技術이 이와같이 進歩해 오고 있는 이 時點에서 速記를 「스피드」를 基準으로 해서 速記士와 一般人과 區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速記士에게는 「스피드」外에 이러가지 特出한 點이 있는바 「스피드」에만 重點을 두어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速記士에 있어서 「스피드」만이 重要視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Perry가 생각하고 있는 速記士의 長點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速記士는 雜多한 音聲의 高度의 識別者(Discriminator)이며 또한 決定者(Concluder)라고 한다.

發言者가 무엇인가 確實히 發音하지 않거나 또는 發音을 빼먹는 境遇에도 速記士는 곧 그 事實을 分析 識別하고 決定을 하여 完全한 文章으로 譯는 頭腦의 所持者라는 것이다

換言하면 速記士는 피나는 訓練과 經驗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銳敏한 聽覺과 頭腦를 가진 者로서 聽診器를 使用하는 醫師와 같이 雜多한 音聲을 判斷하고 事前에 文字를 잘 配列해 가는 言語 專門家이기도 하다라고 Perry氏는 말하고 있다.

Perry氏는 音聲의 高度한 識別者라고 하는 觀點에서 速記士를 再評價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時代가 發展함에 따라서 速記士의 그 方面의 能力은 점점 重要視되리라고 보고 그 理由를 다음 세가지로 들고 있다.

- ① 現代人은 예전 사람보다도 굉장한 速辯에다가 不明瞭, 不正確한 話術의 傾向이다
- ② 사람들은 一般的으로 熱心히 듣는 傾向에 있지 않다. (勿論 速記士와 精神科醫는 除外)
- ③ 言語의 驅使가 대단히 專門的이어서 相互 意思疏通이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공 뜨>.....

재 수 없 는 날

강 종 원

교대하는 시간이다. 3별관 4층이면 슬슬 잡아 5분 정도면 되겠지. 이 계단을 내려 동양다방을 지나 3별관 정문쯤 가면 눈에 익은 (까만 재복에 Y색 두꺼운 표지의 노트를 옆구리에 끼고 나란히 걸어오는 사나이 둘을 만나게 된다. 주부(主副)라는 표현으로 「잠 넘버」에 짝 씌매어 있는 사람들이다.

「뵈어?」

「뵈?」(가보시요)

이렇게 되면 이젠 속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때?」

「아휴! 말마시요. B B가 날 죽였다고.....」(이크! 또 타나보다)

이 먼저 들어간 회의에서 잔뜩 타가지고 나온걸 아직 펼쳐보지도 못한 나로서는 B B라는 말에 그만 질려 비린다. 아닌게 아니라 층계를 올라 회의실문앞에 당도 하니 한창 진행중인 모양으로 복도는 조용한채 「스피커」를 울려오는 선량의 목소리가 크게만 들린다. 직무상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발음)여하에 따라 순간 타고 안타고의 회비? (뭘 “비”할것 까지야 없겠지만)가 교차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직업치곤 묘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세상에 타는것도 많지만 탈려면 「세단」을 타든가 「노벨」상을 타든가 해야지 Y색 노트를 들고 「말」을타서는 타는 기분이 나지 않는다.

용케도 「차드」를 넘기는 「부리핑」이 시작되었다. 저 「부리핑」이 끝나기 전에 빨리 교대를 해야 할텐데. 아직도 시간은 5분이나 남아있다.

速記의 功

副會長 張 基 泰

滿州를 席捲한 日人이 自稱 支那事變이라는 中日戰爭을 일으킨 해인줄 記憶한다 日本 早稻田大學을 卒業한 忠南 稷山出身 閔載禎氏(25歲)가 同期生이며 速記習得者(早稻田式)인 田中氏(25歲)와 同途 서울에다가 速記普及會를 차리기 爲해서 歸國한 해이기도 하다.

閔氏는 富裕家의 子弟다운 風采를 지닌 靑年으로서 自身은 速記者는 아니었으나 速記講習會 없는 韓國에서 普及의 先驅的 役割을 해보려는 꿈에 부풀어 있었고 비록 成果없이 經費만 浪費하고 말았지만 오늘날 逸波式의 創案이 氏의 普及事業德澤 일진대 韓國速記界에 숨은 功勞者임에는 틀림없는 분이다.

敦化門앞 臥龍洞에 建坪 6坪程度의 국수가개 二層에다 看板을 걸고 10名程度가 習學할 수 있는 松板넙새 풍기는 册床과 椅子 그리고 3尺 4尺짜리 黑板 하나 清掃 道具로 施設을 갖춘 초라한 外貌同樣 速記를 배워 보겠다고 希望한 者도 亦 6個月間에 4名에 不過 했으니 當時 우리나라의 速記認識이 어떠했는지 可히 알수 있을 것이다.

收入이란 煙草代 밖에 안되는 閔氏는 田中氏의 生計費와 집賃를 내기 半年에 門을 달고 田中氏는 京城日報社에 入社 하

므로서 이 普及事業은 싱겁게 끝을 보았으나 단 一名밖에 없는 成學者인 나 自身으로 볼 때는 이 6個月이 내 一生을 左右한 期間이고 보니 感懷가 새롭지 않을 수 없는 期間이기도 하다. 閔載禎氏는 그 後 新聞界에 投身 그 名聲이 쟁쟁한 存在임에 反해 나로 하여금 一生을 速記에 獻身하게 한 張本人이 그임에 想到할 때 야릇한 氣分이 든다.

左右間 當時 19歲少年인 내가 約 8個月間 工夫로 2800字의 實力을 具有하게 되지만 앓았던들 四學年에 神經衰弱으로 休學中인 微文高普에 復校했을 터인데 이 實力의 所有로 因해서 앞 길이 180° 變換 셈이됐다.

然이나 배운바 實力을 發揮 해보려는데 뜻밖인 事態가 突發 했다. 그것은 速記는 日語速記를 배웠는데 實務는 韓國語를 速記해야 되는 問題이다. 몇차례의 講演 雜誌社의 일이 그러했고 가뜰에 콩나기式인 實務는 全然 希望이 없는 느낌이 들었고 꿈에 본듯 暫間나타났다가 사라진 普及會 出身으로는 履歷이 또한 問題였다. 復校時期는 가까워졌고 速記의 魅力은 더욱 加重해지고 立身의 素地로 배운 日語速記로 韓語速記를 해야 되는 異常한 方向으로 굳어가고 이러한 岐路에 서서 相當한 苦悶

을 했다.

外祖母님께서(1955年 作故) 패물을 팔아서 내주신 學費는 기어코 나를 東京 한복판에 서게 했다. 早稻田式의 創案者이신 川口 涉先生을 찾아서이다. 勿論 留學의 보람은 있었다. 歸國後(大東亞戰爭이 나기 前年) 中央放送局에 奉職 滿二年餘를 日語速記에 臨했고 이 期間동안 서울에다 早稻田式速記普及會支部를 設置 同志들의 指導에도 힘을 썼는데 그 發足式을 鍾路二街 大觀園(中央料理)에서 行했음은 좀 異色的인 것이었다. 고려式創案者도 이 때 訪問者中 一人이었다.

日語速記生活도 二年에 끝치고 職場을 每新으로 옮긴 後는 다시금 韓語速記生活이 三年間 持續되었다. 文字로 말하면 吏頭文字에 比할수 있는 그러한 速記生活이 千萬多幸 解放後 逸波式을 考究하게 했고 後日 逸波式 一期生이 習學途中 提議 해 온 이른바 「先生님이 못 하시는 逸波式을 우리가 쓸수 있느냐?」는 奇現狀아래 敎學이 進行된 年센스의 時期도 있게 된 것이다. 그 理由는 簡單하다. 日語速記에 익숙했던 關係로 내 自身이 速記를 할 樣이면 逸波式記號가 써지지 않고 손에 익은 日語速記號가 먼저 紙上에 써지는 關係로 그 當時에는 轉換이 不可能했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倭政下의 速記生活이란 오늘 날과 같지않고 座談會 速記가 比較的 많았던 關係로 待遇도 좋았었다. 혼자서 계속 四時間을 速記한 일이 있었는데 어찌 疲困한지 견어치우고 일어나 버리려고 했던 것이 잊지 못할 일의 하나이다.

在日時 實務兼 實力養成次 松竹映畫會社 大船攝影所스크립트部(記錄部)에서 일

을 했었다. 히히벌판에 세워진 白色建物, 바람이 유난이 센 곳이었다. 勤務者 6人中 部長은 岡田敬造라는 當時 40이 넘는 분으로서 大端한 精力家이어서 하루 빠짐없이 3000字—3200字를 그 父親이 불러 주고 이를 速記反文 해서 誤字를 세이 日計를 꾸미는데 나하고 外一人이 數個月間 단련을 받았다. 岡田氏는 性格이 절절하며 好人이었는데 내가 歸國後 衆議院速記士 試驗 3200字에 合格 했다는 消息을 들었다.

韓國人이라고는 그 많은 映畫關係者들 가운데 南氏라는 助役俳優와 二人이었으니 나는 當時오끼나와 出身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實力養成에 날을 보낸 것이다.

職業速記士가 되는 길은 要는 이러한 練習에 있는 것이다. 흔히들 職場을 갖게 되면 練習을 廢하는데 이는 自己能力을 該當職場速記로 固定化 시킬수는 있을지 언정 他職 速記는 어려우며 多方面에 絶친 活躍 그중에서도 座談會速記는 自信을 못 갖게 만들고 만다. 日本과는 달리 速記事務所의 活動이 微微한 韓國이니 말이지 速記士란 言語記錄을 위해서는 如何한 座席이라도 辭讓 않는 實力을 가져야 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實務와 練習이 並行되어야 되는 것이다.

비록 一流라고 일컫는 國會速記士라 할지라도 時間外는 副業을 하기에 餘念이 없는 것이 當時였는데 이 副業에 二種이 있었다. 하나는 速記는 했으나 原稿紙에 옮겨 쓸 時間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速記해서 原稿作成하는 경우인데 이를 復法이라 했고 그 外에는 一切를 自身이 하는 것이다.

甚한것은 「라디오」로 흘러 나오는 漫談 (口語 반사이) 野談(日語 講談)을 速記해 달라는 請託도 있었으니 就職을 했다 해서 練習을 게을리 못했던 緣由가 이에 起因하는 것이요 速記修練은 오히려 就職後에 더 苛酷한바 있다고 할수 있다.

이와 비해 볼 때 現時 國會에서는 休會時에도 徒日하고 있다. 學院을 나와 就職이 되면 自己完成인줄 아는 모양인데 自己實力이 就務當時보다 低下 됨을 防止할 길이 없을 것이다. 議員들의 말이 빨라지서 困難하다는 말을 듣는데 이는 卽 自身이 練習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얘기다.

苛酷한 것 같지만 速記課長은 前言한바 日計表를 作成하여 各日의 實力評價를 公開할 진데 實力向上은 不可避할 것이다.

나는 過去 岡田氏에 依해 그러한 指導를 받았다. 誤字가 많을 때면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3% 以內로 줄어 들었고 어떠한 速記에 臨해서도 겁이 나는 일이 없게 되었다.

손목運動도 많이 했다. 지금 같지 않고 BB연필을 너댓個式 짊어 놓고 또는 속기사—프 서너개를 가지고 넓이 46版程度의 깔깔한 半紙(習字紙)에다 四行을 쓰고는 넘겨 쓰게 마련인데 넘기는 時間이 아까울 程度로 붙이 튀는 그러한 연습이었다. 「라디오」 速記는 歸國後 放送局에서 싫도록 했다. 10分 3000字의 受信速記를 隔日했었는데 言論人 李寬求氏가 몇달동안 業務課에서 나하고 자리를 나란히 했었다. 當時 氏의 長子가 京城豫大에 入學하게 되어 그 祝賀잔치에서 잔뽕을 하고 大醉했던 일이 記憶에 남아있다. 毛允淑

氏, 李端求氏, 李惠求氏, 아나운서로는 이계원氏(作故) 민재호氏가 있었고 洪蘭波氏는 내가 在局時 作故하셨고 金生麗氏는 줄곧 계셨다.

逸波式을 完成後 1946年 여름 “速記에 對해서”란 主題로 放送을 한 일이 있다. 放送局 在職時는 한번도 못 해봤던 放送을 하려고 오랫동안 貞洞 고개를 오를때 人生無常을 되새겨 보던일……

먹고 자는 時間도 “速記”가 執拗하게 달라붙든 한 靑年이 自主獨立에 기쁨을 구가하고 널리 電波를 通해 速記人의 輩出이 時急함을 力說하는 벽찬 希望과는 달리 초라한 내모습을 認識하고 뭐라 말할수 없는 感懷에 젖어 옛情 어린 放送室을 나오던 일…… 放送은 그後 大韓速協이 國會速記士들과 舍心해서 再發足 된 後 한번 더 있었을 뿐이다.

每新 在職時 한번은 麥酒를 마시며 速記를 했는데 그냥 남기기도 뭘하고 해서 연이어 마셨더니 醉하기도 하고 우선 化粧室에 가기가 바빠 진땀을 뻘 일도 있었다. 勿論 司會者와 한職場 無關한 사이였으니까 망정이지 通할 수 없는 일이다.

每事가 다 그렇지만 自身이 遂行 하는 일에 自信을 갖게끔 되어야 일도 하기 수월 하고 재미가 붙는 것이다. 相對方의 發言이 速記文字로 紙上에 現出하는데 있어 마치 기계的인 手動의 境地에 가게 되어야 速記의 眞味를 맛볼 수 있는 것이고 眞價가 發揮 되는것인즉 이는 오직 經驗이 가져다 주는 唯一의 膳物이다. 同時에 自己職業에 실증을 느끼지 않는 時間까지가 일에 對한 滿足感에 醉할 수 있는 가장 보람있는 職業人임을 自覺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무슨 말을 어느 정도의 速度로 發言할는지 未知의 자리에서 연필 한자루에다가 職責을 내맡긴 速記人의 生活은 確實히 스팀도 있고 責任도 兼한 業務이며 速記中의 速記士의 心境같이 緊張의 連續에 시달리어야 하는 職務는 드물것이다. 그런 만치 作成된 原稿는 대견스럽기 짝이없다

특히 倭政下에서는 錄音機도 없어 速記의 緊張度는 보다 더한마 있었고 性能이 좋지 않은 受信速記의 苦衷도 컸는데 比해 볼때 今日の 速記는 隔世之感을 禁할 수 없다.

이제 解放前의 韓國땅의 速記人 動態를 보면 韓人速記士가 대여섯名에 日人速記士가 10名程度 있었다고 기억된다. 日本의 二大新聞 朝日 每日은 서울을 비롯한 支局에 速記士를 配置하고 本社에 對한 記事受信이 速記士의 손으로 이루어졌고, 赤根谷이란 日人이 速記事務所를 차려놓고 總督府 일을 도맡아 보았다. 筆者

는 每新에 있었던 關係인지 日人速記士들과는 全然 面識없이 지냈다. 放送局에서는 郡라는 日人과 같이 있었을 뿐이었다. 當時 서울式 創案者 姜駿遠氏는 京城日報에 있었으나 서로 相面할 機會는 거의 없이 지냈다. 또한 1945年 洪鍾仁氏가 紹介入社한 白某라는 速記士가 每新에 같이 있었는데 解放後 만나보지 못하고 있다.

30年前 在日時 當時만 해도 日本에는 速記의 活躍이 大端했다. 映畫의 臺詞(同時 錄音)도 速記士가 畫面에서 發生하는 一切의 音의 記錄을 담당했으니 오늘날 韓國의 速記界를 돌아볼 때 참으로 半世紀以上 뒤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여기 저기서 開催 되는 講演會의 速記錄이 現今 거리의 週間新聞 팔리듯 팔리며 新聞雜誌社의 速記利用이 우리와 比해 놀랄만큼 컸었다. 이를 想起할때 오늘날 韓國의 現狀이 슬프기만 하다. (次回에 계속)

<逸波法式速記創案者>

<美 製>

코흘리게 꼬마녀석들이 서로 자기집 자랑이 한참이다.

들이 : 피— 고까짓거! , 우리집엔 美製 냉장고에 美製 텔레비가 있다!

석이 : 웃기지 마! 우리집 누나에겐 美製아가가 있단 말이야!

外國速記界視察記 (上)

—東南亞를 돌아보고—

鄭 源 道

外國議會視察의 意義는 우리 議會制度의 能率的이고 効率的이며 建設的인 運營에 도움이 되는데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趣旨에서 國會에서는 每年 計劃에 따라 職員을 派遣하고 있다.

派遣된 職員은 自己의 專門的인 面에 置重하여 制度面과 實務面에서 研究하며 考察하게 되는데 速記士인 本人은 速記分野에 對하여 많은 關心을 가지고 보게되는 바 이미 著書와 文獻에서 紹介되어 알고 있는 先進諸國의 速記文化의 樣相보다는 우리 速記界의 處地와 水準이 같으리라고 믿을만한 國家를 視察함이 有益하지 않을까 期待하던 터에 亞細亞에서 歷史가 오래인 中華民國과 東南亞新生國家의 議會制度를 視察할 機會를 갖게되었다. 速記는 그 起源과 發達이 歐美各國이 훨씬 앞섰으며 亞細亞地域에서는 日本이 歐美에 못지않게 發展되고 있다.

1968년에 國會速記課 金鎮基係長의 視察報告에서 詳細하고도 多方面으로 紹介되어 우리에게 큰 도움과 參考가 되었다고 믿는다.

하나, 今般의 視察은 本人의 無知의 所

致인지는 모르나 아무런 成果가 없이 現況程度만을 알고 돌아온것을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해서 紀行文程度로 視察報告에 代할까 한다.

마레이시아

1969年 4月 7日 泰國航空으로 香港을 거쳐 마레이시아에 到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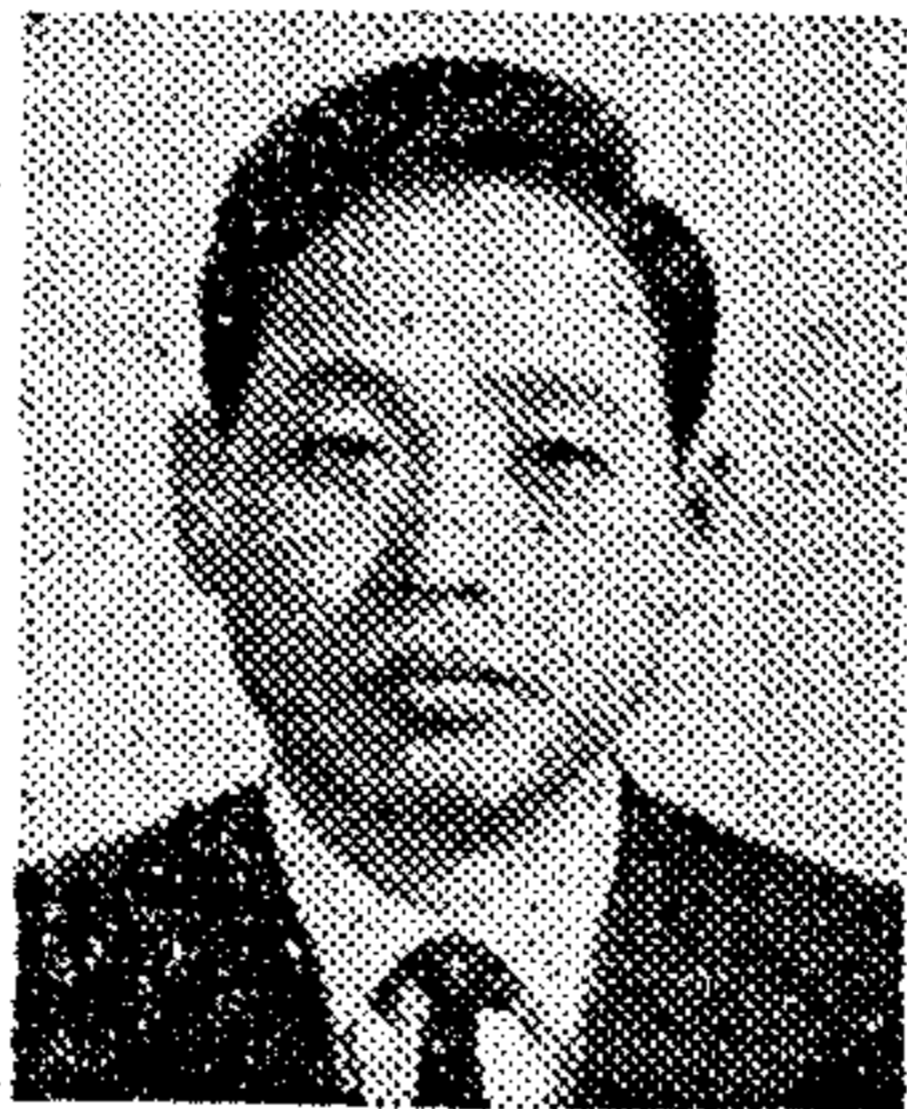
마레이시아는 議員內閣制 兩院制로서 西歐式民主主義制度를 標榜하고 있으며 「라만」前相이 거의 絶對的인 權限을 掌握하고 있다.

下院의 議席은 144席으로 原來는 159席이었으나 65年 8월에 싱가포르가 分離되어 獨立함으로 議席이 줄었다.

本人의 旅行中에는 總選舉中으로 거리는 選舉포스타와 懸垂幕을 볼수있었으며 議會는 閉會中이었다.

1964年의 總選舉에서는 同盟黨이 123席으로 絶對多數이였고 汎마레이시아 回教黨이 9席으로 다음順位이었다.

上院의 總議席은 58席이며 이中 13個各州에서 各各 2名을 選出하고 나머지 32名은 國王이 任命하게 되어있어 極少數를 除外



하고는 與黨 또는 親與黨人士이다. 同盟黨의 壓倒的 多數席를 가진 國會의 뒷받침으로 政府는 所信것 政策遂行을 해나가고 있다.

政體는 1957年 8월에 英國의 植民地로부터 말레이半島 11個州를 基盤으로 말레이 聯邦으로서 獨立하여 1963年 9月 말레이시아를 形成하였다. 後 中央政府와 싱가폴 地方政府間의 對立의 激化로 1965年 8月 싱가포르가 分離되었다.

立憲君主國으로서 國王은 世襲制가 아니고 各州의 州王들 中에서 任期5年으로 選出하게 된다.

그 나라의 言語와 人種問題는 速記와 多分한 關係가 있다고 생각하여 알아본 즉 人種은 말레이 人이 400萬으로 44% 中國人이 320萬으로 35% 印度人 및 파키스탄 人이 86萬으로 9% 原住民(보르네오) 73萬 8% 其他 20萬으로 2%의 分布이며 駐在國의 經濟界는 中國人이 支配하고 있고 政治 및 行政權은 말레이 人이 掌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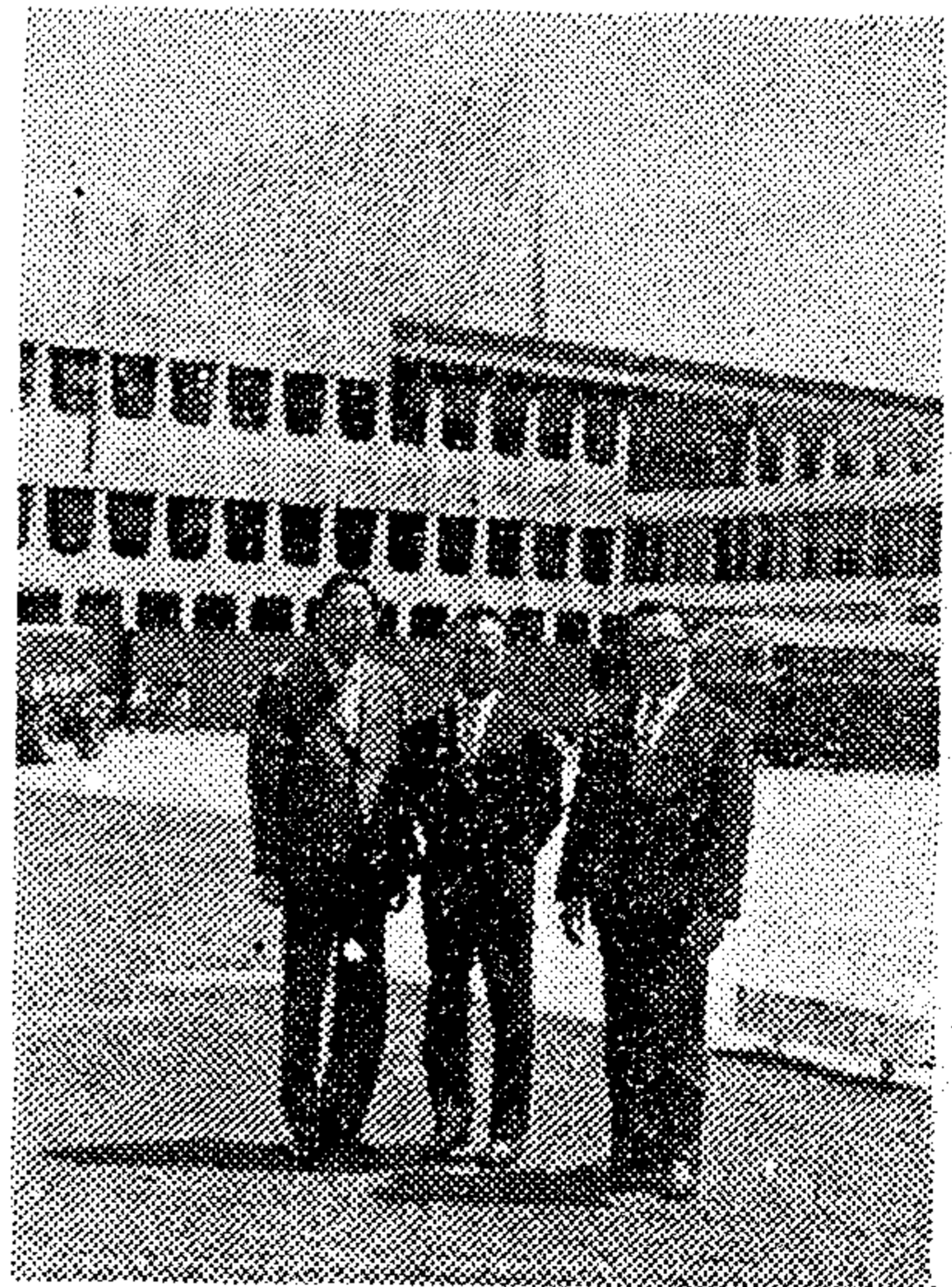
言語는 말레이語 · 英語 · 中國語 · 印度語等을 使用하고 있으나 公用語는 事實上으로 말레이語 및 英語가 併用되고 있다 憲法上으로는 말레이語를 單一 公用語로 삼기로 되었으나 混成民族으로 이루어진 駐在國인에 相互間의 利益을 保護하는 面에서 他言語의 併用이 不可避한 現實이며 言語問題는 深刻한 問題임에 틀림없다.

亞細亞의 南端인 地域까지의 航空便에 依한 所要時間은 서울發 9時 25分에서 台北到着이 12時였으며 香港 到着이 14時 25分으로 約 5時間이었고 香港을 8日 10時半에 出發하여 馬來首都「쿠아라 룸플」에 13時 20分에 到着하여 延 8時間이 걸렸다.

機上에서 내려다보니 모든山들이 砂防工事に 依한 造林地帶와 같아 密林地에서도 原始林이 茂盛할텐데 造林이 必要할까 하였는데 實은 이것이 寶庫인 고무林으로 經濟成長의 原動이었음을 알게되었다.

旅裝을 「회드랄 호텔」에서 풀고 市街地를 나서니 우리나라 伏中에 溫室속에 들어간것 처럼 숨이 확 막히는것 같이 더워 그곳 사람은 어떻게 견디나 물어보니 낮에는 赤道가 바로위라 구름이 없으면 숨막힐 정도이나 구름이 끼면 빛이 따갑지 않아 살만하다하며 官公署 會社의 낮 休息時間이 3, 4時間으로 通用되고 있다 한다.

9日 正刻 9時에 大使館 李和均(現外務部 歐州課長)先生의 案内로 議會를 訪問하게 되었다. 時間觀念에 對한 葛弘基大使로부터의 말을 듣고 正刻에 到着하여 警護室長格인분의 상세한 說明으로 廳舍見學을



말레이시아 議事堂앞에서

먼저하게 되었다. 新築建物이라 器物等으
깨끗하고 廳舍內部를 特殊物質로 해놓아
서 디디는 感觸이 상쾌하였다.

上, 下院本會議室은 넓은 面積은 못되
며 議席은 中央을 與野가 마주보게되어있
으며 議長은 與席에서는 左 野席에서는
右側에 位置하고 맞은 便側에는 警護室
長과 速記席이 있으며 密閉된 硝子壁室
에는 同時通譯室이 있다. 正面二層 높
은 곳에는 國王席이 있고 맞은편에는 前
列 新聞記者席 後列에는 傍聽席이었다.
會議室밖에는 休憩室과 圖書室이 붙어있
었다.

特殊한 것은 建物出入門中에 國王의 專
用門과 複道 國王室이 別途로 되어있는
點이다. 옆에는 20餘層가량의 議員會館이
雄壯하며 산뜻하게 세워져 議員의 議政活
動을 도와주고 있었다 事務總長을 訪問하
여 여러가지 對話를 나누었는데, 速記法
式은 英國피트멘式으로(通譯을 通하여 聽
取)速記士의 數는14名으로 充分히 記錄을
擔當하고 있다한다. 或 機械速記를 使用
하나 했더니 經費關係로 機械를 購入차
 못하고 手筆速記로서 하고 있고 反文(翻
譯)은 打字로 한다고 한다. 特記할만한것
은 國家의 總豫算을 審議하는 課程이 行
政府豫算擔當局長으로부터 1年間の 豫算
에 對한 說明을 듣고 即時異議없이 通過된
다고한다. 國政監査도 하지않는다하니 가
히 議會의 權能을 짐작할 수 있다. 分科
는 4個分科가 있는바 이는 議會自體의 規
程等を 規制하는 即 議員의 報酬 會議運
營 懲戒等を 議論하는 分科이라한다 그
래서 議會의 存立價値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議員內閣制憲法이라 반드시 議
會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本國에서 떠날때는 무엇인가 期待를 가
졌었는데 닥치고보니 도리어 우리나라 議
會制度의 優秀함을 새삼 느꼈으며 議會政
治의 本營인 英國의 教育과 影響이 짙었
든 말레이 國에 對하여 오히려 懷疑心을
느꼈다.

人口密度가 낮은 곳이라 建物들이 뜸뜸
히 있었으며 이름모를 植物의 綠地帶가
거리에 많이 있고 군데 군데의 綠地運動
場에는 午後 4時頃에는 유쾌한 運動競技
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都市도 이와같은 環境이 되어 자라나는
靑少年 및 우리國民 保健에 도움이 되었
으면 하는 아쉬움 마저 느꼈다.

換率은 美1弗에 馬來 3의 比率로 市場
에서는 果物이 많이 눈에 띠었다.

南方에서의 果實中 가장 嗜好品은 留
漣이라는 果實로서 約 1K以內에서도 그
냄새를 臭覺으로 알수 있으며 옛말에 婦
人을 팔아서라도 그 果物을 사먹는다고
하였다 한다. 實際 냄새를 맡으니 糞尿냄
새비슷하여 그리 香스럽지 못하였으며
맛은 구린듯하고 쏘는 맛을 가져서 처
음에는 비위가 상할정도였으나 2, 3次먹
이보니 南方의 氣候를 몸깊숙히 매는 듯
한 感을 주며 맛들기 시작하였다.

싱가폴

11日 14時 20分 쿠아라룸푸를 出發하여
1時間 10分만에 싱가포르에 到着하였다.

機上에서 보니 三面이 바다로 쌓였고
속내민 南端에 位置한 都市로서 大概의
建物樣式이 高層外는 中國式으로 오래된
느낌을 주었다.

人口分布는 中國人이 140萬으로 80%이
고 말레이 人은 26萬정도 이다.

言語는 마레이시아와 같이 國語는 마레이語이나 中國語 印度語 및 英語가 共用語가 되고있으며

이곳은 亞細亞와 유럽間의 通商貿易과 交通上의 重要的 要塞라함은 周知의 事實로 商業都市이다.

議會는 51個 選舉區에서 直接選舉에 依하여 51名이 選出된 議員으로 構成된 單院制議會이며 人民行動黨 (37)이 壓倒的 多數의 議席을 차지하고 있다.

大統領은 議會에서 選出하며 政府機構는 議院內閣制로서 首相부와 10個省으로

되어있고 各部省에는 Parliamentary Secretary 政務次官(議員)이 한名式이다.

이곳의 換率도 마레이시아와 같이 3對1의 比率이며 마레이시아 貨幣도 通用되고 있었다. 反共國家에서 온 本人으로서 이상히 여겨진 것으로 都市中央에 中共系의 큰 百貨店이 있어 많은 商品을 展示하였고 中共政策宣傳物이 貼付되어있는 點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次號 계속) 〈國會速記第2係長·議會速記法式研究委員會研究幹事·前協會理事長〉

合 格 者 (國會速記士公開採用試驗)

國會事務處에서는 지난 4月 24日 25日 兩日間 國會速記士 採用試驗을 實施한바 51名이 應試 8名의 合格者를 냈다.

1次 시험인 演說體(分當 310字速)·論說體(分當 270字速) 各5分 速記實技試驗에서 90點 이상 17名의 合格者에 2次시험 學科(國語·國史·經濟大意·法制大意·一般常識)와 3次시험인 面接試驗을 通해 最終의 榮譽를 얻은 8名의 合格者를 보면 議會法式이 5名 逸波法式이 2名 高麗法式이 1名으로 되어 있으며 男子가 3名 女子가 5名으로 단연 女性上位時代의 一面인듯 싶다. 아뵤튼 “미스”고갈 狀態에 있던 國會速記課內에 싱싱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다섯명씩이나 자리를 같이 하게 됐으니 沈滯一路에 있던 事務室 雰圍氣가 한층 밝아지겠다고 모두들 함박 웃음들이다.

그런데 이번 採用試驗의 壯元은 議會法式의 洪淳寬君으로 알려졌으며 協會로서도 이들 8名의 合格者에 대해 衷心으로 祝賀를 드린다.

合格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洪 淳 寬 (男·議會法式)	吳 준 根 (男·議會法式)
梁 順 姬 (女· ")	金 明 式 (女· ")
李 賢 熙 (女· ")	崔 性 周 (男·逸波法式)
鄭 桂 泳 (女·逸波法式)	尹 玉 姬 (女·高麗法式)

속기가 최고야!

김 기 영 (여)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비교적 좋은 것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대로 아마 난 가장 좋은 이 속기(?)를 위해서 비교적 좋은 일년이라는 세월과 정력을 희생 시켰음에랴, 이즈러진 얼굴에 입만큼은 “속기가 최고야……”

인생 60년이라하면 69년도 1년 만큼은 쉬어서 가라는……그러면 경력이 하나 생길 뿐 아니라 특기란을 채울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입소식때의 도서관장님 축하 말씀에 귀가 솔깃, 허지만 그동안 이 지하실——우리들은 속기사양성소를 지하실이라 통칭하고 있다——과 안녕을 할까 말까 하다가는 이제 졸업시험 까지 끝낸 내가 기특해졌고 선생님들 말씀에 얼마쯤은 충실하려 한 나에게 요번 졸업식에 우등상은 못타나 끈기상(?) 쫘은 타야 할텐데……

한결같이 속기란 어려운 것이라고 귀에 멩이 들도록 여러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중간 중간 통감할때도 있었지만 所訓에 있는대로만 처신한다면 별로 어려울것없는 속기였는데 아마 어렵다는것은 所訓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 그 예로 100명이 되던 인원이 지금은 30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보아도 알만하다.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인내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 정확한 속기를 할수 없었고

그러기에 지하실을 떠나야만 했던 그분네들의 심정을 내가 몰라 준다면 누가 알아주리오? 차마 끊어 버릴 수 없었던 속기였다 속기에 미묘한 매력이 있는 탓일까? 아니면 못나게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소치일까? 여태까지 끙끙대며 지하실에 남아있던 나와는 달리 용감하게 손을 털고 일어선 그 분네들에게 한편으로 부러운 눈망울을 던져 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의 얄팍한 판단력을 가지고는 어느것이 옳았는지 감당하기 힘들니, 이견 시간이라는 좋은 해결책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은 없고……

1년간 지하실 생활에서 나에대한 새 사실을 꼽는다면 속기라는 기술을 가집으로서 유행가 정도는 얼마든지 따라 적을수 있다는 자랑(?)거리가 생겼고 덕분에 배워놓은 노래도 몇가지 있지만…, 또 비밀日記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특기할 사실인가? 또 하나는 새로운 너·네임을 얻었다는것. 풍선만큼 부풀어 기대했던 봄야유회를 앞두고 익살쟁이 男들의 작당으로 선생님들과 女들에게 꼬리표를 하나씩 달아주었던것이다. “제비, 거북이, 떨감색시, 삼돌이, 메뚜기, 잉꼬, 굴비, 새댁왕코” 등등 난 얼굴이 동그란 탓이었는지 이후부터 만두라는 것이 지하실 속에서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렇지! 만두는 잘 반

죽해서 주물러서 밀어서 동그랗게 오려 맛
있고 영양이 풍부한 재료를 넣어 만드는데
겉 보다 실속이 있는 나를 요렇게 적
절히 표현해준 男들이이 그 친제적인 미리
에 박수를 보내노라. 우리의 처지를 위로
시켜 주던 속기 주제가 “이세상에 속기 없
으면 무슨 재미로……. 속기! 속기! 속
기가 최고야”를 목청껏 부르던 지하실 동
지들과 웃으며 지나던 1년이 이제 정들자
이별하게 되었으니 아왕 정든 국회사무처
라는 이름아래 찰떡같이 붙어있고 싶은데
어찌나!

속기로 맺어진 여러 인연들이 내 생활

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코 무시할수 없었던 지하실 일년간,
무언가 공통점을 지닌 군상들과 더불어 밤
과 낮이 구별되지 않은 지하실속에서 언
젠가는 여의도로 옮긴 후에도 지하실을 사
용하느냐는 오징어군의 질문으로 한바탕
웃기도 했지만 내간엔 그래도 내일을 향
한 마음에서 언제나 햇빛을 보려나를 소
망해보며 지하실 생활이 어땠느냐고 누가
물으면 그런대로 재미스런 생활이었다고
말하리라!

오! 진짜로 속기가 최고야!

(國會速記士養成所 2期卒業生)



사 연

유 지 영

푸라타나스의 앞은

심 없이 떨어지는데

울려지는 내 마음은

불품없이 앙상히 남을

가지가 역겨워서라

눈보라 매정하게

함박눈은 쌓이는데

울려지는 내 마음은

부질 없는 헛세

덜히는 풀 보기 싫음인가

고드름은 한숨 되어

처마 끝에 주렁이는데

울려지는 내 마음은

구정물 낙수가 되어

떨어짐을 두려워서라

눈 덮힌 강변엔

햇별이 눈부신데

울려지는 내 마음은

눈녹이 보여줄

갯벌이 싫음인가……

生活 人 的 態 度



河 良 培

人類는 天賦人權의 權利와 生存權의 自由를 가지고 生의 賦與를 받았다.

이는 未開社會로 부터 人類의 發達이 경이롭기도 하지만 이러한 基本的 權能에 는 추호의 變함이 있을 수는 없다.

이를 否定할때 人類의 良心은 暴政에 항거하고 기어코 人權의 회복 및 그의 伸張을 도모하였다. 그 좋은 例로서 不亂시 大革命과 3. 1運動이 그렇지 아니한가? 실로 人類의 歷史는 絶對的 善을 추구하는 時間의 永續이며 發展의 흐름이다. 사실상 停滯된 集團은 自然淘汰를 免치 못했거나 試鍊을 거듭했다.

끝없이 發展의 意慾을 가지고 있는 人類가 大自然을 支配하는 한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疑心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人類의 方向을 啓示하는 絶對的 善이란 무엇을 意味함인가?

가까히 우리 人間本然을 통찰해 봄으로써 解答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健全한 良識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에 빠진 어린애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을까 또한 野山에 필 이름모를 꽃일 망경 짓밟을 수가 있을까?

또한 거치른 言行이나 불결한 환경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는 끊임없는 改善의 努力으로 淨化 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人間의 自己發展的 思考方式은 급기야는 物質文明을 高度化시켰고 人間不在의 危機에 빠뜨렸다.

날로 격심해가는 都市의 公害문제 貧富의 懸絶한 차이의 露呈 그로 緣由하는 民心의 各박동이 실로 큰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人間이 人間을 위하여 存在하는 한 거기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을 것이다.

人間이 아름다움을 求하고 착하고 옳은 것에 共鳴을 느끼는 限 人類의 良心은 계속 存在하고 倫理道德은 人間의 血管속에 흘러갈 것이다. 이러한 基本的 慾求를 俱現시키는 方法으로 民主主義의 發達이 民衆의 支持를 通해 發達되었다. 그리고 經濟開發을 서두르려는 것이다.

이러한 開發이 國家的 事業으로 되어감에 따라 後進, 開發途上 國家에서는 中央集權化의 傾向을 띄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中庸의 道를 기하여야 될 것이니 歷史를 通해 보면 權力의 過度한 亂舞는 革命을 透發시켰고 金力의 威勢는 많은 人類의 基本的 人權에 威脅을 加했을 뿐이 아닌가?

그러나 歷史에 대한 正當한 判斷은 既存社會를 否定한다고 해서 문제가 解決되어 지는것이 아님을 가르친다.

먼저 既存社會의 病的인 要素除去를 全國民의 共同目標로 함으로서 보다 잘사는 社會 互讓의 社會로 變貌를 시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보다 넓게 人類의 權益과 自由는 지켜질 것이다.

科學文明의 加速度的 發達は 精神文明의 疲弊를 深化시킨다.

生活人の 態度는 이를 어떻게 흡수하여 止揚할 것인가

사람이 먹어야 하듯이 精神機能 역시 營養分을 섭취해야 한다. 健全한 精神生活에로의 執着에서만이 人間이 아름다움을 求하고 착하고 옳은 것을 찾는 人間本然으로 그 復歸가 可能해지지 않을까?

여기에 東洋文化의 價値性이 再跋現 된다. 西洋文化가 精神文化의 토대위에 物

質文明이 發展한 것이라면 아직 東洋文化는 傳統的 精神文化위에 物質文明이 本格的으로 融合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생각하는 生活人の 認識은 東西洋의 兩文化와 文明을 歷史의 辦證法的 發展으로 融合해서 새로운 生活觀을 形成케 해야 될 時期에 도달 하였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서 無比判的 外國模倣으로 인한 自我喪失을 극복할 수 있고 繁榮된 나라속의 互讓의 社會로 踰달을 칠수있다.

이러한 共同目標는 全國民의 團結로서 이루어 질수 있다. 또한 生活人 스스로의 自覺 그리고 自律的 價値觀이야말로 이를 보다 源泉적으로 끌어 올리는 捷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것이 現代를사는 生活人이 가야할 方向이 아닐까?

(國會速記課勤務)

編輯後記

○ 지난 3월에 발간하려던 創刊號가 그만 한달이나 지각하게 됐다. 김빠진 맥주 같은 기분이어서 편집자들은 그저 송구스럽고 무안하기만 하다.

○ 술한 고갯길을 넘다보니 우리도 이제 成年이 됐고 또 社團法人이란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종래의 “速記文化”를 “速記界”로 題號를 바꿈으로서 亦是 탈바꿈을 시도했다.

○ 이번 創刊號의 내용은 制限된 紙面관계상 不得不 法人體로서의 協會事業紹介에 치우친 點을 否認할수 없게 됐다. 創刊號의 경우 어쩔수 없었다는 點에 스스로 慰安하면서 第2號부터 보다 감칠 맛이 나도록 料理솜씨를 내볼 생각이다. 會員여러분의 푸짐한 料理材料에 기대 해본다.

○ 逸波 張基泰先生의 “回想記”는 우리에게 많은 敎訓을 주리라 믿으며 殘餘玉稿는 第2號에 完載할 생각이다.

또한 鄭源道氏의 外國視察記도 앞으로 계속 外國에 나가게 될 會員 여러분의 旅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이제 地殼을 뚫고 나온 어린 잎파리가 곧 온누리를 푸르게 할 것이다. 하늘도 푸르다. 우리 協會도 싱싱하고 푸르다. 會員여러분의 가슴에도 그저 푸르르기를 본다.

<편집인 일동>

會 務 日 誌

1969. 12. 30 第2回 定期總會에서 會長에 崔致煥議員, 理事長에 李東一氏를 補選
 第2回 定期總會受任事項에 의거 李東一 理事長은 아래와 같이 理事補選
 理事 申 世 華 " 楊 澈 在
 " 金 永 春 " 黃 寅 河
70. 1. 5 第9次 理事會에서 다음의 執行部署를 構成
 總務部長 楊 澈 在 宣傳部長 梁 源 龍
 事業部長 申 世 華 研究委員長 李 康 賢
 總務理事 黃 寅 河 宣傳理事 金 永 春
 事業理事 宋 博 文
70. 1. 10 第5號 回報 配付
70. 1. 14~2. 3 第6回 冬季速記無料講習會 實施
70. 1. 26 FY 70年度 歲入歲出豫算書, FY 70年度 事業計劃書 및 FY 70年度 國庫補助金申請書와 FY 69年度決算書, FY 69年度 事業實績報告書를 文公部에 提出.
70. 2. 16 第11次 理事會에서는 資格審查委員長에 韓鍾烈理事를 補選하고, 會誌 編輯委員에 梁源龍, 金永春, 韓奉永, 申世華, 楊澈在 速記展示會 準備委員에 신세화, 송박문, 김종수, 박영식, 박경식, 김선필, 전홍복, 김경만, 이윤화, 채강희, 고응번 회원으로 구성.
70. 2. 23 第6號 回報配付 및 會費滯納會員에 公翰發送.
70. 3. 9 第12次 理事會에서는 資格審查委員에 金永善, 金仁寧, 韓奉永, 宋博文, 柳智永, 梁源龍으로 構成.
70. 3. 16 國庫補助金 240,000원 受領.

< 總 務 部 >

社 團 大 韓 速 記 協 會 定 款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이 法人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以下 “本協會”라 한다) 라 稱한다.

第 2 條 (所在地) 本協會의 本部는 서울 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곳에 總會의 承認을 얻어 支部를 둘 수 있다.

第 3 條 (目的) 本協會는 速記人의 總集 結體로서 速記文化의 研究發展 및 普及 和 速記人의 資質向上, 相互協力, 親睦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 (事業)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한다.

1. 速記文化 研究에 關한 事項
2. 速記文化 普及에 關한 事項
3. 社會各界의 速記分野에 關한 事項
4. 速記文化의 宣傳, 出版에 關한 事項
5. 速記技能 檢定에 關한 事項
6. 外國速記文化와의 交流에 關한 事項
7. 言論報道分野에 있어서의 速記에 關한 事項

第 2 章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協會의 會員은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로 한다.

1. (名譽會員) 本協會의 目的과 事業을

理解하고 物心兩面으로 後援하는 人士로 理事會의 決議로서 名譽會員에 推戴된 者.

2. (正會員) 本協會의 會規에 依한 資格審查에 合格된 者(資格審查에 關한 事項은 會規로서 定한다)

3. (準會員) 本協會에 加入된 速記法式을 習得한 者나 習得中에 있는 者 中 理事會의 決議로서 準會員의 資格을 認定받은 者.

第 6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總會를 通하여 本協會의 運營에 參與할 權利를 가진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다음 各號의 義務를 가진다.

1. (各譽會員) 本協會 運營의 諮問에 應할 수 있다.
2. (正會員) 議決權, 選舉權, 被選舉權 其他 會員으로서 모든 權利를 平等하게 行使하며 定款또는 總會의 決議事項 遵守와 會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3. (準會員) 總會에서 意思表示만을 할 수 있다.

第 8 條 (會員의 脫退) 會員이 本協會에서 脫退하고자 할때에는 理事長에게 脫退를 提出한다.

第 9 條 (懲戒) (1) 會員에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理事長

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會員을 懲戒할 수 있다.

1. 第7條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
2. 本協會의 事業을 妨害할 때
3. 本協會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害를 끼친 때

(2) 前項의 懲戒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除名
2. 譴責
3. 資格停止

第 3 章 任 員

第10條 本協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 長 1人
2. 副會長 2人
3. 理事長 1人
4. 理 事 12人(以內)
5. 監 事 2人

第11條 (選出) (1) 任員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前 項의 任員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就任 한다.

第12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共히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第13條 (任員의 職務)

1. (會長) 會員은 本協會를 代表하고, 本協會의 業務를 統理한다.
2. (副會長)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한다
3. (理事長) 理事長은 理事會를 代表하며 「本協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第14條 (職務代行) 會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副會長이, 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總務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5條 (理事) 理事會를 통하여 「本協會」의 業務에 관한 事項을 審議 決議하며 總會 또는 會長으로 부터 委任된 事項을 處理한다.

第16條 (監事) 監事는 다음 各 號의 職務를 行한다.

1. 「本協會」의 財産事項 監査
2. 理事會의 運營과 그 業務에 관한 事項의 監査
3. 前 2 號의 監査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 4 章 總 會

第17條 (構成) 總會는 “本協會”의 最高 決議機關이며,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構成한다.

第18條 (召集) (1) 總會는 定期 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2) 定期總會는 年1回 12月中에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3) 臨時總會는 正會員의 3分の 1 以上の 要求가 있을때 또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會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第19條 (附議事項) 總會에 附議하는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事業計劃에 관한 事項
2. 豫算 및 決算에 관한 事項
3. 定款變更에 관한 事項
4. 任員選出에 관한 事項

5. 其他 委任事項

第20條 (定足數) (1) 總會는 在籍 構成 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會 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2) 前項의 議決權은 總會에 出席하는 다른 會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경 우에는 委任狀을 書面으로 作成 會議 前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5章 理事會

第21條 (構成) 理事會는 “本協會”의 執 行機關으로서 總會에서 選出된 理事로 構成한다.

第22條 (召集) 理事會는 理事長이 必要 하다고 認定한때나 在籍理事 4 人 以上 의 要求가 있을때에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의 長이 된다. 다만 總會 後 最初의 理事會는 會長이 召集한다.

第23條 (附議事項) 理事會에 附議할 事 項은 다음과 같다.

1. 總會에서 議決된 事項의 執行에 關 한 事項
2. 總會에 附議할 案件의 豫備審議에 關 한 事項
3. 豫算決算書作成에 關한 事項
4. 事務計劃運營에 關한 事項
5. 定款改正案의 提出에 關한 事項
6. 會員加入의 決定에 關한 事項
7. 會員 懲戒에 關한 事項.
8. 其他 重要事項

第24條 (定足數) 理事會는 在籍構成員 의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한 者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 다.

第6章 執行部署

第25條 (部署) 理事會에 다음의 部署를 두고 “部” “會”에 部長 委員長 各1人을 둔다.

1. 總務部
2. 宣傳部
3. 事業部
4. 研究委員會
5. 資格審查委員會

第26條 (各部署의 業務分擔) 各 部署의 業當務擔은 會規로서 定한다.

第27條 (各 部長 및 委員長의 選出方法) 各部長 및 委員長은 理事會에서 在籍理 事 3分之2 以上의 贊成으로 選出한다.

第7章 財 政

第28條 (財政) (1) “本協會”의 財産은 이를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한다.

(2) 基本財産은 年1回 그 目錄을 作成 하여 文化公報部長官에게 報告한다.

(3) 基本財産은 賃貸 處分 其他 私權을 設定하거나 하는 事項에 대하여는 미 리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29條 (歲入等) “本協會”는 다음의 歲 入으로 그 歲出에 充當한다.

1. 會 費
2. 補助金
3. 贊助金

4. 其他收入

第30條 (會計監査) 監事は“本協會”의 會計에 관한 事項을 年2回 以上 監査를 하여야 한다.

第31條 (會計年度) “本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

第8章 事務局

第32條 (設置)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本協會”의 業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둔다.

第33條 (職員) 事務局에 局長 1人과 職員 若干人을 둘 수 있다.

第34條 (事務局長등) (1)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同意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理事長이 任命한다.

(2) 事務局長은 理事長의 指示를 받아 “本協會”의 任務를 處理한다.

(3) 事務局職員은 理事長이 任命한다.

(4) 事務局職員은 事務局長의 指示를 받아 事務局의 業務를 處理한다.

第9章 補則

第35條 (解散) “本協會”를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總會에서 在籍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議決하고,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36條 (殘額財産) “本協會”가 解散할 때에는 그 殘除 財産은 文化公報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國家 또는 本協會와 類

似的 法人이나 團體에 寄贈한다.

第37條 (定款變更) (1) “本協會”의 定款改正은 理事會決議나 正會員 20名 以上の 署名捺印을 얻어 總會에 提出할수 있다.

(2) 定款改正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分の 2 以上の 贊成으로 決定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第38條 (規則) 다음 各號의 事項에 對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本協會”의 規則으로 定한다.

1. 支部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事項
2. 事務局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事項
3. 會議召集運營에 관한事項

附 則

(1) “本協會”는 “大韓 速記協會” 解散과 더불어 一切의 그 業務를 引受한다.

(2) (經過措置) 1. 이 定款은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쳐 社團法人의 許可를 얻음으로서 그 効力이 發生한다. 2. 創立 總會에서 報告接受된 者는 “本協會”의 最初의 正會員이 된다.

위와 같이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定款을 作成함.

☆	☆
	☆
☆	☆

任 員 名 單

名譽會長	李	孝	祥	(國會議長)	
顧問	裴	泳	鎬	(國會事務總長)	
“	李	鎬	賑	(國會專門委員)	
“	任	哲	淳	(“)	
“	河	在	鳩	(國會議事局長)	
“	權	孝	燮	(國會委員局長)	
“	吉	基	祥	(國會總務局長)	
“	劉	龍	珪	(國會速記課長)	
指導委員	姜	駿	遠	· 金 星	漢
會長	崔	致	煥	(國會議員)	
副會長	張	基	泰	· 李 東	根
理事長	李	東	一		
總務部長	楊	澈	在		
總務理事	黃	寅	河		
宣傳部長	梁	源	龍		
宣傳理事	金	永	春		
事業部長	申	世	華		
事業理事	宋	博	文		
研究委員長	李	康	賢		
資格審查委員	韓	鍾	烈		
理事	韓	奉	永	· 韓 東	春
監事	金	仁	寧	· 高 在	欽

速 記 界 (創刊號)

<非 賣 品>

1970年 4月 30日 印刷

發行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

速記業務(案内)

從來의 여러가지 制約으로 수요자 여러분의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못했던 속기업무를 금번 본회서 이를 대폭적으로 개편단일화 함으로서 신속정확의 원칙아래 다음의 기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속기업무에 대한 여러분의 상담을 환영 합니다.

1. 各種總會의 會議錄作成
2. 座談會懇談會및 세미나
3. 公判速記와 錄音테이프再生
4. 著述速記및 其他記錄業務一切

東友速記事務所 (73) 1266

學院案内

☆ 創立23週年!

- ◇ 우리나라 唯一의 速記士私設養成所
- ◇ 大韓速記協會指定養成機關

한글速記科

1. 本科.....4個月
1. 研修科.....1年
1. 資格.....高卒以上

英文速記科

1. 本科.....3個月
1. 研修.....1年
1. 資格.....高卒以上

修了後

國會, 各官公署, 各言論機關, 各軍速記兵, 外國人商社, 留學時的筆記및 알바이트等 高級就職으로 社會 進出 容易

官認 東邦速記學院 TEL (73) 1266

